

Development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문정화
황진수
선승아

Development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연구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선승아(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자문위원

김창호 부소장(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김가원 · 김문정 · 박경하 · 이주원 박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현 · 이정아 · 지은정 박사(한국고용정보원), 김윤영 박사(경기연구원), 변금선 박사(서울연구원)

이승호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이종섭 박사(전북연구원), 김수린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익기 소장(동아시아 노인정책연구소), 임연옥 박사(전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김춘식 교수(광주 동신대학교)

문봉수 이사(경기도 힐링상담센터), 박희원 교수(성신호대학원대학교), 손민정 외래강사(백석예술대학교)

이은진 교수(서울신학대), 정순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신우철 관장(고양시니어클럽)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저자 문정화, 황진수, 선승아

발행인 김현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2971-2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연구개요	0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0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08
제2장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인구와 고령화	13
제2절 고연령자와 고령자	17
제3절 생산적 활동의 개념	23
제3장 국내외 고령지표 검토	27
제1절 국외 고령지표 검토	29
제2절 국내 고령지표 검토	35
제3절 시사점	42
제4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43
제1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의 및 개발 방향	45
제2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48
제3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102

제5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109
제1절 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111
제2절 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추진 로드맵	117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표 목차

[표 1-1] 고양시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5
[표 1-2] 타 지역 고용률 비교	6
[표 2-1] 우리나라 고령인구 변화 추이	14
[표 2-2] 고양시 성별 인구 현황(2023년 11월 기준)	15
[표 2-3] 고양시 고령인구 변화 추이	16
[표 2-4] 고령자 연령 기준	20
[표 2-5] 생산적 활동의 개념	25
[표 3-1] Ginevra Floridi, & Benjamin E. Lauderdale(2020)의 생산적 노화 지표	29
[표 3-2] Teerawichitchainan, B. et al.(2019)의 생산적 노화 지표	30
[표 3-3] Fernández-Ballesteros, R. et al.(2011)의 생산적 노화 지표	31
[표 3-4] Active Ageing Index	33
[표 3-5] Hartford Aging Index	34
[표 3-6] 이주일 외(2011)의 생산적 노화 척도	35
[표 3-7] 정경희 외(2002)의 노인복지지표	36
[표 3-8] 정경희 외(2017)의 노인의 삶의 질 지수	37
[표 3-9] 이소정 외(2010)의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38
[표 3-10] 정경희 외(2015)의 연령통합 지표	39
[표 3-11] 김은석 외(2016)의 중장년층 구직자 역량 진단 지표	39
[표 3-12] 고령화연구패널	40
[표 3-13] 노인일자리패널	41
[표 4-1] 당사자 FGI 참여자 정보	49
[표 4-2] 당사자 FGI 주요 결과	61
[표 4-3] 전문가 자문 주요 결과	65
[표 4-4] 고용 영역 초안	67

[표 4-5] 역량과 교육 영역 초안	68
[표 4-6] 고용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70
[표 4-7] 고용 - 추가 필요 지표 및 이유	74
[표 4-8] 역량과 교육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76
[표 4-9] 역량과 교육 - 추가 필요 지표 및 이유	80
[표 4-10] 고용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83
[표 4-11] 역량과 교육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90
[표 4-12] 고용 -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98
[표 4-13] 역량과 교육 -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1
[표 4-14] 고용 영역 최종(안)	104
[표 4-15] 역량과 교육 영역 최종(안)	106

그림 목차

[그림 1-1] 고양시 노년부양비 비율	4
[그림 1-2] 연구 내용과 방법	10
[그림 2-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13
[그림 2-2] 고령자 집단 구분	22
[그림 3-1]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	32
[그림 4-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개발	45
[그림 4-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10대 개발 방향	47
[그림 4-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48
[그림 4-4]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구성	102
[그림 4-5]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103
[그림 5-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112
[그림 5-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방법	113
[그림 5-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조사 및 분석 방법	114
[그림 5-4]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 계획	118

요 약

1. 연구개요

□ 연구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고양시는 2028년에는 노인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고양시 고령자 고용률은 2013년 15.7%에서 2022년 26.5%로 급증하였고, 2022년 기준 고양시 전체 고령자의 62.9%가 일할 의향이 있는 등 고용 욕구가 높아서 고령자 관련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함
-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자의 생산활동 욕구를 충족해 경제적·신체적·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고양시를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 내용과 방법

-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 국내외 고령지표 검토, 생산지표 개발,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 델파이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함

연구 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이론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와 고령화 • 고령자의 개념 • 생산활동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분석
국내외 고령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고령지표 검토 • 국내 고령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구성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의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방향 • 고령 당사자 FGI • 전문가 델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 델파이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방안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2. 이론적 논의

□ 인구와 고령화

- 2023년 11월 말 기준 고양시 인구는 1,075,089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2,166명(16.0%)으로 기준치인 14%를 넘겨 고령사회에 해당함. 남성 고령자는 75,545명으로 전체 남성인구의 14.4%이고 여성 고령자는 96,621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의 17.5%를 차지함

- 고양시 고령인구는 2005년 7.1%, 2021년 14.3%에 이어 2028년 20.6%로, 고령 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총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양시의 고령화 속도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보다 빠르다 할 수 있음

□ 고연령자와 고령자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약자’, ‘노인’, ‘고령자’, ‘장년’, ‘시니어’, ‘어르신’, ‘실버 세대’ 등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함
-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고연령자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과 고연령자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침
- 현실 언어 사용에서 만들어진 어감과 의미, 한자 구성을 고려할 때 ‘늙음’이란 나이 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고령자에서 ‘고령’은 나이 들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함
- 이 연구에서는 고연령자가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크고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하여 고연령자에 대해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함. 고령자는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자 통계, 주민등록인구 현황 등에서 고령인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함

□ 생산적 활동의 개념

- 생산적 활동은 통일된 정의가 없고 학자나 실천가 혹은 국가, 문화,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함
-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높은 고용 욕구를 반영하고 정책 개입 목표 달성에 용이하도록 생산활동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3. 국내외 고령지표 검토

- 대부분 국내외 지표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고령자의 유급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생산적 노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지표에서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회참여, 돌봄, 자기 관리 등 생산활동을 폭넓게 정의하는데, 이는 경제적 가치 창출, 경제적 비용의 발생 가능성 완화, 무급의 재화·서비스 창출 등도 생산임을 고려한 결과로 파악됨
- 여러 지표체계에서 학력, 신체건강, 정신건강, 정보화 지표 등 역량 관련 지표를 기본 지표로 포함해 역량지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4.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 고령자 생산지표의 정의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한 지역사회 지표임
- 지역 고령자의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개발 활동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임

□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방향

- 10대 방향: 타당성, 포괄성과 간결성, 측정가능성, 명료성, 정책 연결성, 지속성, 비교 가능성, 체계성, 당사자성, 지표 중심성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당사자 FGI	지표 초안 구성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전문가 델파이 3차 조사	지표 확정
75세 미만 그룹 75세 이상 그룹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당사자 FGI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지표 초안 구성	고령자 고용 전문가 20명	고령자 고용 전문가 20명	고령자 고용 전문가 20명	델파이 3차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지표 구성
2023.07.28 실시	2023.07.28. ~2023.08.20	2023.08.21. ~2023.08.28	2023.09.20. ~2023.10.05	2023.11.08. ~2023.11.14	
-고령 당사자가 생각하는 생산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생산활동의 경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고용 영역, 역량 및 교육 영역으로 구성 -결과지표와 과정지표로 구성 -과정지표는 욕구, 정책, 사회문화 특성 지표로 구성	-지표 초안에서 추가, 삭제, 수정, 보완할 지표 조사 -지표별 중요도 평가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제시 -지표별 중요도 평가 -지표 영역 구분에 대한 의견 수렴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 제시 -지표별 중요도 평가	-2개 영역, 46개 지표 최종 확정 -각 영역은 결과지표와 배경지표로 구성 -배경지표는 개인차원(정책, 사회문화 환경)으로 구분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 지표는 고용 영역과, 역량과 교육 영역으로 구성

<고용 영역>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결과 지표 (10)	고용률	65~69세 고용률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해당 연령 취업 고령자	
		70~74세 고용률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해당 연령 취업 고령자	
		75세 이상 고용률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해당 연령 취업 고령자	
		월평균 임금액	취업한 고령자의 월평균 임금액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취업 고령자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고령 임금근로자 중 최저사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고령자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고령 임금근로자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고령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고령 임금근로자	
		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임금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임금에 대한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근로시간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근무환경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배경 지표 (19)	개인 차원 (7)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취업자 대상)	취업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의사(미취업자 대상)	미취업 고령자 중 앞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미취업 고령자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참여 희망률	고령자 중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 비율	자체 조사	고령자	
		구직활동 경험률	미취업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실제 구직활동을 한 고령자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미취업 고령자	
		희망 근로시간 형태(전일제, 시간제) 비율	취업자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전일제, 시간제)의 비율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희망 대비 실제 근무시간 차이	취업 고령자 중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 정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장래 근로 희망 연령	취업 중이거나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일하고 싶은 최대 연령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사회 차원 (12)	정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 및 시설의 수 (취업알선기관 등)	내부자료	-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중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 비율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진로지도,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직업훈련 등)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취업정보 접근 용이성	취업 중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편하다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사회문화특성	고령자 고용	고 인식하는 정도		고령자	
		공공일자리 비율	고령인구 대비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 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타 사업)	내부자료	고령자
		민간일자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민간일자리 수(사업체 종사자 수)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kosis)	전체 인구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향률	민간기업 중 고령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민간기업 비율	내부 조사	민간기업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취업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에서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구직자의 역량(지식, 기술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평가 정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 시 지난 한 해 고양시 고령자 고용 정책 안내)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고령자 고용에 있어 우리 사회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취업 고령자 중 직장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물리적 고령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취업 고령자가 일터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노동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 (편리한 화장실, 고령친화성 시청각적 정보 제공, 휴식공간 확보, 작업장의 안정성 등)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역량과 교육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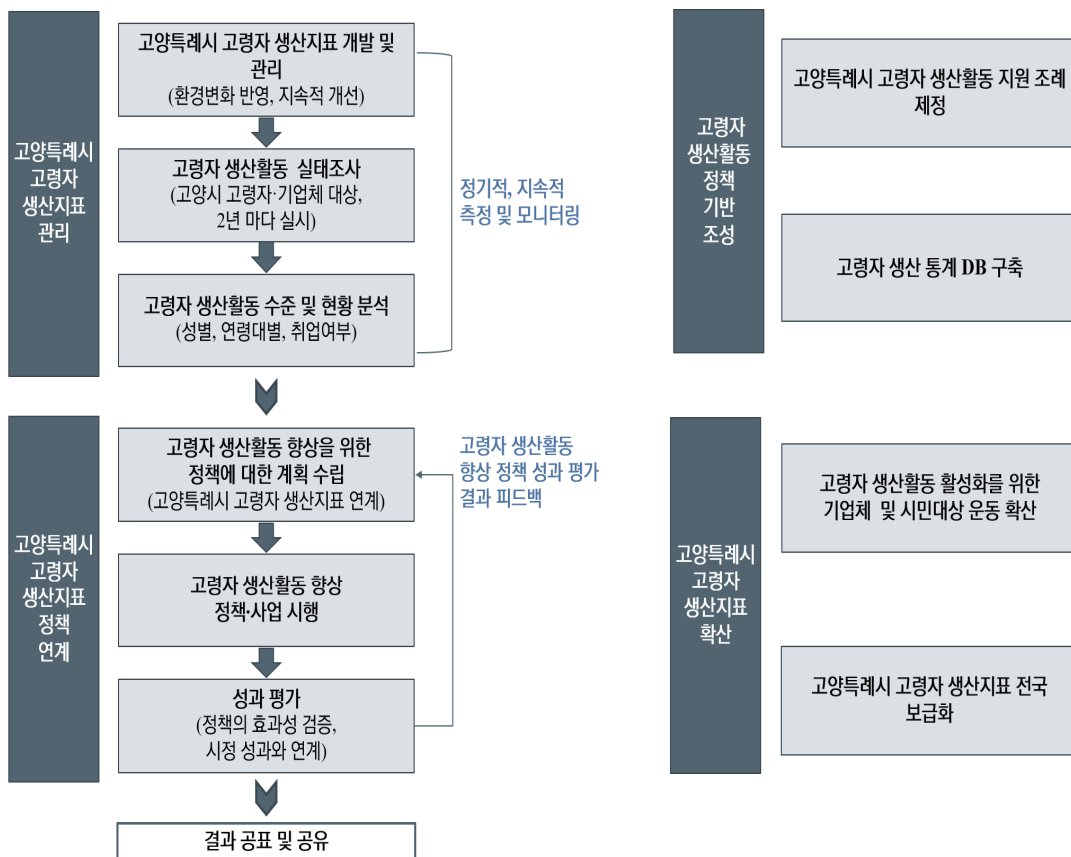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결과 지표 (8)	학력수준	고령자의 학력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석사, 박사)	사회조사	고령자
	월 소득수준	고령자 가구의 월 소득수준	사회조사	고령자
	건 주관적 신체 건강수준	고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신체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강		건강상태	사		
		객관적 신체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수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정신건강-우울 정도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우울감 정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역량	정신건강-인지장애 경험률	고령자 중 지난 한 해 인지장애를 경험한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수준	고령자가 일상이나 직무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사회적 관계 역량수준	업무나 단체활동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감정 및 행동 조절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역량 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배경지표 (9)	개인 차원 (2)	직업교육 희망률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직업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 자	
		직업교육 참여율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직업교육에 참여했던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 자	
	사회 차원 (7)	정책	직업교육 기관 수	고령자에게 직업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	내부자료	-
			직업교육 참여 용이성	직업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하기에 편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 자
			직업교육 후 취업률	직업교육을 받은 고령자 대비 취업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직업교육 참여 고령자
			직업교육 만족도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자체 조사	직업교육 참여 고령자
	사회 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정도	고령자가 생각하는 고령자 역량수준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정도	민간기업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수준에 대한 인식정도	자체 조사	민간기업	
		교통, 이동 편의에 대한 인식정도	고령자의 대중교통 및 이동 편의성에 대한 인식정도	사회조사(홀수)	고령자	

5.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 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 고령자 생산지표의 관리와 활용 방안으로 지표 관리 방안과 지표 정책 연계 방안, 고령자 생산활동 정책기반 조성 방안, 지표 확산 방안을 제시함



< 참고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조사 및 분석 방법 >

- 조사주기: 2년 단위
- 고령자 실태조사 표본수: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3%로 1,100명 내외

- 분석방법: 횡단분석(성별, 연령대별, 취업여부로 집단 구분)과 종단분석(과거 분석-현재 측정-미래 예측)을 종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추진 로드맵

-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추진 로드맵을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정책 연계 및 전국 보급화, 고령자 생산지표 성과 도출 순으로 제시함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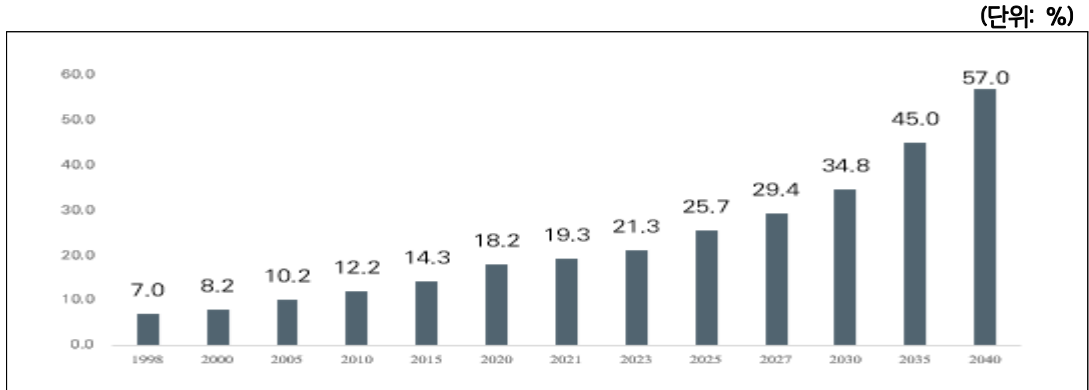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1)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 11월 기준 172,166명으로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함(통계청, 2023)
- 고양시는 200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3,871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노인인구 154,13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2028년에는 노인인구가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고양시 중위연령은 2020년 43.9세였으나 2040년에는 53.9세로 20년 동안 10살이 많아질 전망으로 심각한 고령화가 예상됨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우리나라는 2019년(72.2%), 고양시는 2020년(74.5%)에 감소 추세로 전환됨(통계청, 2023)
 - 고양시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00년 68.4%, 2005년 69.9%, 2010년 73%, 2015년 74.7%, 2022년 73.2%임
- 고양시 노년부양비¹⁾는 1998년 7.0%에서 2010년 12.2%, 2020년 18.2%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 34.8%, 2040년 57.0%로 2020년 이후 그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질 것으로 예측됨. 즉, 2040년에는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57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생산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¹⁾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

[그림 1-1] 고양시 노년부양비 비율



<자료> 1998~2023년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인출/ 2025~2040년은 통계청 경기도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 수치임

2) 고령화 위기론과 신노년 담론

-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대 사이에 노인의 비효율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형성되었고 1920년대 후반에 일어난 대공황 이후에 이 편견은 은퇴와 연금을 통해 제도화되었음(박선권, 2013)
 -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30년 동안 노년층은 소비와 관련된 잉여집단으로 간주되었음
- 인구 고령화는 수명 연장을 이룬 업적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근로 연령대 인구 비중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짐
- 이에 노인부양비와 의료비 증가, 노인 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부정적 함의를 강조하는 ‘고령화 위기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이며, 노년 인구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과중한 사회적 부담이 초래되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
- 1970년대 이후 서구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함. 이에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이 요구되었고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하면서 부정적이고 의존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발적

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고령화 속 노인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신노년 담론이 등장함

- 신노년 담론에는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생산적 노화는 노인을 병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 지역,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체로 바라보며 노인의 유급 노동을 강조함

3) 고령자 생산활동과 효과

- 많은 연구에서 고령이 되어서도 직업을 가지고 전일제든 시간급이든 유급으로 일을 하는 것은 고령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줌(Barker 등, 2005)
-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개인적으로 기술 사용의 기회,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정체감과 유용감,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함(김경희, 2007; 서수오, 2007)
- 사회적으로는 숙련된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됨

4) 고양시 고령자 고용률 및 고용 욕구 증가

-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13년 15.7%에서 2022년 2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지역별고용조사, 2022)

[표 1-1] 고양시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2년
15.7%	13.5%	16.2%	21.4%	22.4%	26.5%

<자료> 2022년 지역별고용조사

- 2022년 기준 고양시 고령자 고용률은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유사한 도시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다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지역별고용조사, 2022)

[표 1-2] 타 지역 고용률 비교

구분	전체	1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전국	60.9%	67.2%	69.8%	54.2%	35.0%
고양시	58.9%	68.3%	64.5%	41.9%	9.7%
수원시	60.1%	66.9%	66.6%	40.8%	7.9%
성남시	59.6%	68.5%	68.2%	40.7%	10.7%
용인시	57.1%	66.6%	67.6%	31.8%	7.3%

〈자료〉 2022년 지역별고용조사

- 향후 저출생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특히 노동시장 고착도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라는 거대인구집단이 초고령화되면서 노동시장 참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임
- 2022년 고양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전체 고령자 중 62.9%가 향후 일할 의향이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고령자들도 80.9%가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등 고용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고령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연령통합사회 구축 필요성 증가

- 노인은 허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등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청소년기는 공부, 청장년기는 취업, 노년기는 은퇴 후 여가 생활 등 연령을 기준으로 역할과 활동을 구분하는 연령분절사회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삶을 설계하는 자율성이 있는 연령통합사회로 변화를 도모해야 함

- 차별 등 고령자의 사회 진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연령 주류화 관점을 도입하여 근로 경험이 많은 고령 인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6)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필요성

-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숙련되고 경험 많은 고령 인력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고령자가 이전부터 지속해 온 일자리가 아니라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일자리 비중이 높고 희망 임금이 실제 임금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므로(박진희, 2023)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고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직업교육 등이 필요함
-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고양시를 활력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고령자의 생산활동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근거로서 고령자의 생산활동과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1장 서론 외 4개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와 고양시의 인구와 고령화에 대해 살펴보고, 고연령자와 고령자의 개념을 검토함. 그리고 생산적 노화의 등장 배경과 생산적 활동의 개념을 검토함
 - 3장: 「국내외 고령지표 검토」에서는 국외 생산적 노화지표로 Ginevra Floridi, & Benjamin E. Lauderdale 지표, Teerawichitchainan, B. et al.의 지표, Fernández-Ballesteros, R. et al.의 지표와 기타 고령 지표로 Active Ageing Index, Hartford Aging Index 등을 검토함. 또 국내 고령 지표 및 조사로 생산적 노화 척도, 노인복지지표,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연령통합 지표, 중장년층 구직자 역량 진단 지표, 고령화연구패널, 노인일자리 패널을 검토함
 - 4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에서는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정의하고 지표 개발 방향을 제시함. 또 고령 당사자 FGI와 1, 2,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도출함
 - 5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에서는 생산지표 관리, 정책 연계, 정책 기반 조성, 지표 확산 등 지표의 관리 방안과 활용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 고령화 현상과 고령자 개념, 생산활동의 개념을 도출하고 국내외 고령지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 선행연구를 검토함
- 통계자료 및 기존자료 재분석
 - 고령자 인구 현황과 추계, 고용률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현황, 경기도 인구추계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함
- 전문가 자문
 - 지표 개발 방향과 방법, 결과 분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함
- 고령자 FGI(Focus Group Interview)
 - 65세 이상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생산활동의 의미, 생산활동의 중요성, 생산활동 경험, 고령자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
- 전문가 델파이(Delphi)조사
 - 사회복지, 고령자 고용, 경제,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추가·삭제·보완할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영역에 대한 의견, 지표 중요도 평가 등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분석함

[그림 1-2]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이론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와 고령화 • 고령자의 개념 • 생산활동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분석
국내외 고령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고령지표 검토 • 국내 고령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구성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의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방향 • 고령 당사자 FGI • 전문가 델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 델파이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방안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인구와 고령화

제2절 고연령자와 고령자

제3절 생산적 활동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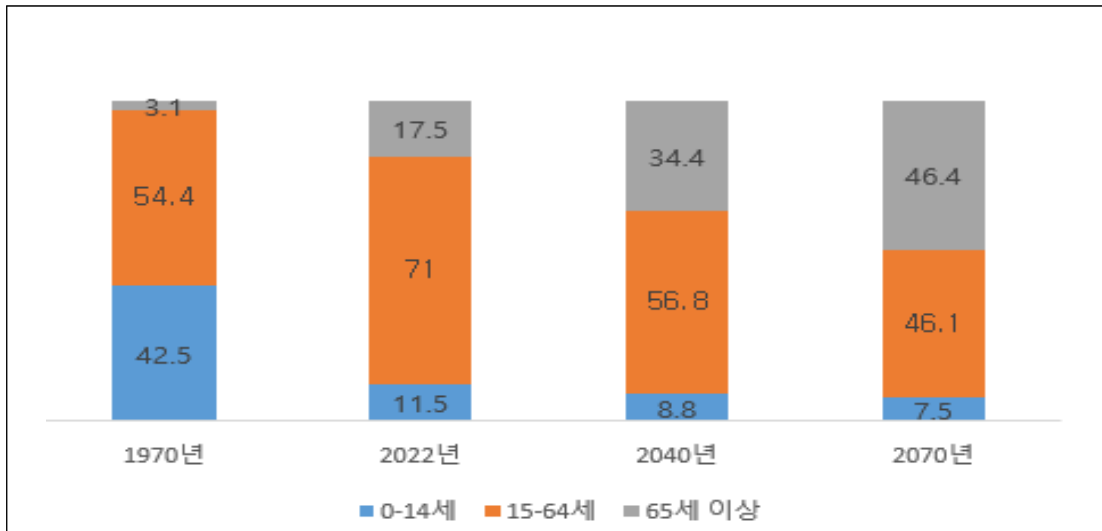
제절 인구와 고령화

1. 우리나라 인구현황과 고령화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 7,000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22)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로 1970년(3.1%) 대비 6배 가량 증가했고 2070년에는 4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2022)

[그림 2-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함
 -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1,058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총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름

[표 2-1] 우리나라 고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2000	2010	2017	2020	2022	2025	2030	2035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47,008	49,554	51,779	51,836	51,558	51,448	51,199	50,869	50,193	47,358	42,617	37,655
0~19세	13,754 (29.3)	11,408 (23.0)	9,740 (18.8)	8,824 (17.0)	8,305 (16.1)	7,510 (14.6)	6,609 (12.9)	5,908 (11.6)	5,668 (11.3)	5,742 (12.1)	4,668 (11.0)	3,913 (10.4)
20~39세	16,728 (35.6)	15,238 (30.8)	14,170 (27.4)	14,212 (27.4)	13,153 (25.5)	12,896 (25.1)	12,083 (23.6)	10,942 (21.5)	9,481 (18.9)	7,354 (15.5)	6,413 (15.0)	6,500 (17.3)
40~64세	13,131 (27.9)	17,542 (35.4)	20,503 (39.6)	20,648 (39.8)	20,953 (40.6)	20,456 (39.8)	19,451 (38.0)	18,729 (36.8)	17,799 (35.5)	15,258 (32.2)	12,853 (30.2)	9,770 (25.9)
65세 이상	3,395 (7.2)	5,366 (10.8)	7,356 (14.2)	8,152 (15.7)	9,146 (17.7)	10,585 (20.6)	13,056 (25.5)	15,289 (30.1)	17,245 (34.4)	19,004 (40.1)	18,683 (43.8)	17,473 (46.4)

<자료>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5년부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5 공표) 수치임

<주> 천명 미만 단위 반올림, 중위 추계임

2. 고양시 인구현황과 고령화

- 2023년 11월 말 기준 고양시 인구(주민등록인구)는 1,075,089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2,166명(16.0%)으로 기준치인 14%를 넘겨 고령사회에 해당함
 - 남성 고령자는 75,545명으로 전체 남성인구의 14.4%이고 여성 고령자는 96,621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의 17.5%를 차지함

[표 2-2] 고양시 성별 인구 현황(2023년 11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고양시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계	1,075,089	100.0	524,514	100.0	550,575	100.0
0~19세	169,730	15.8	86,407	16.5	83,323	15.1
20~39세	278,439	25.9	140,130	26.7	138,309	25.1
40~64세	454,754	42.3	222,432	42.4	232,322	42.2
65~69세	61,649	5.3	30,857	5.9	30,792	5.6
70~74세	35,562	3.3	16,479	3.1	19,083	3.5
75~79세	29,485	2.7	12,306	2.3	17,179	3.1
80~84세	24,847	2.3	9,501	1.8	15,346	2.8
85~89세	14,404	1.3	4,758	0.9	9,646	1.8
90~94세	5,015	0.5	1,393	0.3	3,622	0.7
95~99세	1,051	0.1	208	0.0	843	0.2
100세 이상	153	0.0	43	0.0	110	0.0
65세 이상	172,166	16.0	75,545	14.4	96,621	17.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2023.11.30.기준).

- 고양시는 200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3,871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노인인구 154,13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8년에는 노인인구가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 2000년 5.6%였던 고양시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1월 16.0%(172,166명)로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20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인 18.9%(9,688,859명)에 비해 낮고 경기도 15.5%(2,111,321명)보다는 높은 것임
- 고양시 고령인구는 2005년 7.1%, 2021년 14.3%, 2028년 20.6%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총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고양시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 할 수 있음

[표 2-3] 고양시 고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2020년
총인구	784,994 (100.0)	895,039 (100.0)	940,287 (100.0)	1,008,555 (100.0)	1,030,677 (100.0)	1,062,477 (100.0)
0~19세	251,198 (32.0)	264,535 (29.6)	247,869 (26.4)	221,817 (22.0)	209,340 (20.3)	190,020 (17.9)
20~39세	293,118 (37.3)	296,944 (33.2)	275,538 (29.3)	280,575 (27.8)	285,760 (27.7)	290,419 (27.3)
40~64세	196,841 (25.1)	269,690 (30.1)	333,590 (35.5)	400,280 (39.7)	419,932 (40.7)	443,469 (41.7)
65세 이상	43,838 (5.6)	63,871 (7.1)	83,292 (8.9)	105,884 (10.5)	115,646 (11.2)	138,570 (13.0)
연도	2021년	2023년	2025	2028	2030년	2035년
총인구	1,079,353 (100.0)	1,075,089 (100.0)	1,104,689 (100.0)	1,123,448 (100.0)	1,132,639 (100.0)	1,143,093 (100.0)
0~19세	180,292 (16.7)	169,730 (15.8)	185,331 (16.8)	184,849 (16.5)	184,564 (16.3)	179,638 (15.7)
20~39세	289,324 (26.8)	278,439 (25.9)	274,549 (24.9)	267,766 (23.8)	261,013 (23.0)	236,458 (20.7)
40~64세	455,603 (42.2)	454,754 (42.3)	450,204 (40.8)	439,301 (39.1)	434,460 (38.4)	423,310 (37.0)
65세 이상	154,134 (14.3)	172,166 (16.0)	194,605 (17.6)	231,532 (20.6)	252,602 (22.3)	305,687 (26.7)

<자료> 2023년까지는 주민등록인구로서 확정인구이며, 2025년부터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보고서 수치임

<주> 천명 미만 단위 반올림, 중위 추계임

제2절 고연령자와 고령자

1.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

- 우리나라 법에서는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함
 - 1962년 제정되어 2008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행형법」, 1961년 제정되어 1999년 폐지된 「생활보호법」과 1982년 제정 이후 1991년 전부 개정 전까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노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1979년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1992년 마련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노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노인’이라는 용어는 1948년 「내무부사무분장규정」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김주현, 김지혜, 2012)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법에서 사용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노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 등의 용어를 사용함
- 이 외 고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장년’, ‘시니어’, ‘어르신’, ‘실버세대’ 등도 사용함
- 고연령자에 대한 개념은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배경 및 여건에 따라 단순히 연령으로만 규정할 수 없고 체계적인 정의를 찾기도 어려움
-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고연령자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과 고연령자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침

- 특정 범주의 사람들은 명명을 통해서 사회적 이미지와 역할을 부여받고, 사회구성원들은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명명에 따른 이미지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함(엄기정, 2000)
 -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언어적 규정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반영함
 -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자신의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침(Elizabeth S. Kelchner, 1999)
- ‘노약자’는 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됨
- ‘노약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늙거나 약한 사람’으로, 주로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과 같이 나열되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자를 의미함(김주현, 김지혜, 2012)
 - ‘노약자’에 포함된 ‘약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일정 영역에서 고연령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지만 약하다는 것이 자격 제한 사유가 되어 활동 범위를 제약받고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당할 수 있음
- ‘노인’은 늙은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됨
-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며, 용어 자체에 ‘늙음’을 뜻하는 한자인 ‘노(老)’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늙은 사람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김주현, 김지혜, 2012)
 -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이호선, 2012)
 - 노인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 결함이 있는 사람
 - 자기 통합 능력이 감퇴 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생물학적 기관 및 조직 기능상 감퇴시기에 있는 사람
 -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 인체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력이 감퇴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함

- 그러나 의학의 발달, 노인 인구의 증가, 사회적 참여 확대 등으로 결손과 감퇴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의한 것을 시초로 미국이나 UN에서도 이 기준을 받아들여 국제적으로 통용됨(Thane, Parkin, 2005)
 - 65세를 기준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7~14% 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14~20% 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20% 이상) 등 한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함
- 우리나라 법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1948년 「내무부사무분장규정」에서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등장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법 용어로 가장 오랫동안 널리 사용됨
- 현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2. 고령자의 개념

- 고령자는 ‘나이가 썩 많은 늙은 사람’을 뜻하지만 ‘나이가 많음’과 ‘늙음’은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려있는 용어임(김주현, 김지혜, 2012)
-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고령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고연령자’를 뜻하게 되었고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노령자 대신 고령자로 적기 시작함
- 노인은 주로 비생산적인 연령(Past Productive Age)을 뜻하며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호의 대상(65세 이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고령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가리킴(최홍기, 2011)

- 고령자는 복지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지닌 권리 주체로 재규정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함
 - ‘복지’와 짝을 이루면서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인 노인과 달리 고령자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령의 대비처럼 권리, 차별, 고용 촉진 등의 개념과 함께 고령자라는 용어가 사용됨
- 고령자라는 명칭은 현재 대부분의 법·규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고연령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됨
- 현실 언어 사용에서 만들어진 어감과 의미, 한자 구성을 고려할 때 ‘늙음’이란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고령자에서 ‘고령’은 나이 듦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지시하는 기능을 함(김주현, 김지혜, 2012)
- 고령자에 대한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부처나 조사기관의 목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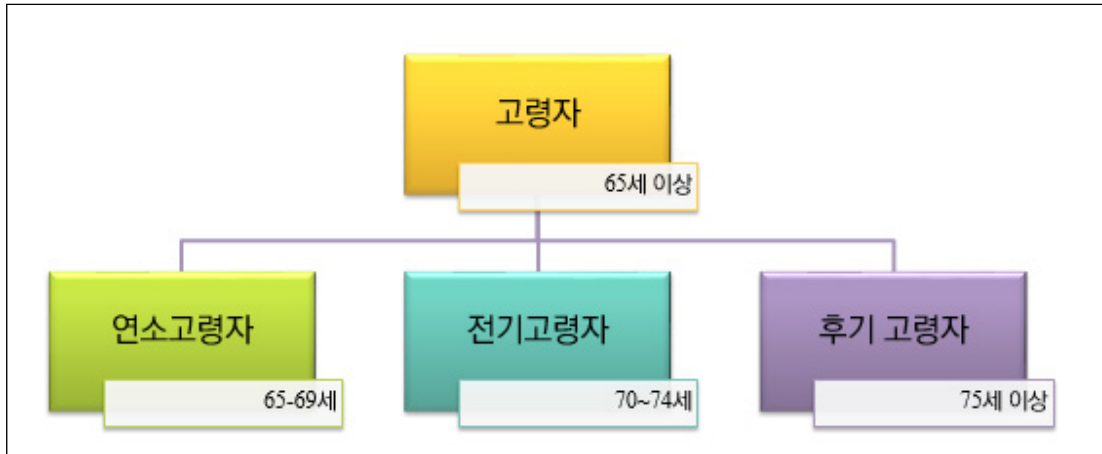
[표 2-4] 고령자 연령 기준

구분	용어	연령기준	비고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55세 이상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	50세 이상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고령자	55세 이상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고령자	60세 이상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고령근로자	55세 이상	
사업체태널조사	고령근로자	55세 이상	
OECD: Working Better with Age	older worker	55세 이상 65세 미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고용동향	고령자	55세 이상 65세 미만	89년 이전 자료의 고령자 대상 :55세 이상 OECD 기준적용

구분	용어	연령기준	비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고령층	55세 이상 80세 미만	
통계청: 통계 용어상 고령자(the elderly)	고령자	65세 이상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
통계청: 고령자 통계	고령자	65세 이상	
UN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분류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총조사 고령자	고령자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현황 고령인구비율	고령인구	65세 이상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고령층	50대, 60대, 70대 이상	
체육학 대사전 고령자(the aged)	고령자	60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70세 이상, 때로는 50세 이상 포함	
ILO 제162호 권고: 고령근로자	고령 근로자	고령화로 인하여 고용 및 직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	

- 본 연구에서는 고연령자가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지닌 권리 주체임을 강조하여 고연령자에 대해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고령자는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의 정의와 고령자 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의 고령인구 기준을 적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함
- 고령자는 연령에 따라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은 Neugarten(1974)과 Laslett(1987)에 의해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는 65세에서부터 75세 미만을 전기 노인으로,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으로 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지표 적용 및 분석에 있어서는 고령자 연령대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령자를 연령대별 3개 집단으로 구분함
 - Neugarten(1974)의 기준을 적용하여 75세를 기준으로 고령자 집단을 구분하고, 65~70세와 70~75세의 고용률 차이를 고려하여 75세 미만 집단을 다시 두 개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연소고령자(65~69세), 전기고령자(70~74세),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구분함

[그림 2-2] 고령자 집단 구분



제3절 생산적 활동의 개념

1. 생산적 노화의 등장

- 생산적 노화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바탕으로 노년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신노년 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음(Morrow-Howell, Hinterlong & Sherraden, 2001)
- 생산적 노화는 고령화 위기(ageing crisis)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함
 - 생산적 노화는 버틀러(Butler, R. N)가 1982년 잘츠부르크 콘퍼런스에서 의존(dependency)과 사회의 부담(social burden)이라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인의 생산적인 잠재성이라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사회 노년학의 어휘사전에 주요 용어로 자리 잡음(박선권, 2013)
 - 고령화 위기론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및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핵심 논지로 함
 - 생산적 노화 담론은 고령화 위기론에서 전제한 고령자의 역할과 이미지에 반대론적 입장을 취함. 고령자를 사회적 부양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을 강제하였던 의존적 노화 관점에서 벗어나 비생산성 대신에 생산성, 의존 대신에 자립, 사회의 부담 대신에 기여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함(김정석, 조현연, 2017)
- 생산적 노화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비생산성의 신화라고 비판하면서 고령자도 생산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령자의 비효율성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비판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해 옴
- 생산적 노화는 노인을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므로 주로 노인고용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적용됨

-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가치 아래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전문학술지를 통해서 성공적 노화 개념과 함께 2002년 이후 집중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대중매체에서도 새로운 노인문화와 관련된 기사가 급증하였음(최희경, 2010)
- 생산적 노화 담론은 인구 고령화를 문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적 지출 재정의 재원 확보라는 경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노년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년의 삶을 관료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생산적 노인집단과 의존적 노인집단을 구분하여 고령자 내부에서의 격차와 차별을 야기한다는 한계점을 가짐(김정석, 조현연, 2017).
-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생산적 노화는 그간 주류 담론에서 강조해온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고령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담론을 형성해야 함

2. 생산적 활동의 개념

- 생산적 활동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고 학자나 실천가 혹은 국가, 문화,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함
- 생산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생산적 활동은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에서 교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개념화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과 이를 더욱 확장하여 무급 노동, 돌봄, 가족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Simonsick(1995), 김형수(2003), 남기민·최화강(2009) 등은 생산적 활동을 유급 노동으로 정의하였으며 Herzog(1989), Bass·Caro·Chen(1993), Buttler·Schechter(1995), 김현정 외 4인(2009) 등은 유급노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음

[표 2-5] 생산적 활동의 개념

순번	학자	내용	비고
1	Herzog (1989)	생산적 활동은 지불이든 미지불이든, 가사, 육아, 자발적 노동, 가족과 친구에 대한 도움과 같은 활동을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으로 미지불 노동을 포괄하여 활동을 확대 정의함	광의의 개념
2	Bass · Caro · Chen (1993)	생산적 활동은 지불, 미지불과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활동과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능력의 개발 활동 추가함. 그러나 개인적 건강, 성장,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은 제외함	광의의 개념
3	Simonsick (1995)	생산적 활동을 유급 노동으로 한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노동 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정의	협의의 개념
4	Buttler · Schechter (1995)	생산적 활동을 지불노동, 자원적 활동, 가족 지원,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는 자조적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타인의 자원 필요성을 줄이는 자립을 강조함	광의의 개념
5	김형수 (2003)	생산적 활동을 경제적 대체방식을 위주로 하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근로를 중심으로 정의함	협의의 개념
6	남기민 · 최화강 (2009)	노년기의 일을 경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급 노동에 한정	협의의 개념
7	김현정 외 4인 (2009)	생산적 활동을 무급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나 용역의 산출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사회참여 활동, 돌봄 노동 활동 포괄하여 정의함	광의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고용’에 대한 고령자의 높은 욕구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목표 달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많은 학자가 정의하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 중 Simonsick(2001), 김형수(2003), 남기민·최화강(2009)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협의의 개념을 적용함. 그리고 많은 고령지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Bass·Caro·Chen(1993)가 강조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능력 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생산적 활동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제 3 장 국내외 고령지표 검토

제1절 국외 고령지표 검토

제2절 국내 고령지표 검토

제3절 시사점

제절 국외 고령지표 검토

1. 생산적 노화 관련 지표

1) Ginevra Floridi, & Benjamin E. Lauderdale의 생산적 노화 지표

- Floridi, G., & Lauderdale, B. E.(2020)는 이론에 근거한 생산적 노화의 지표 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강건성 분석을 적용해 이탈리아와 한국의 생산적 노화 지표를 개발하는 학술논문을 발표함
 - 사용한 데이터는 고령화패널조사(KLoSA)와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의 50세 이상 응답임
-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노인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을 생산적 노화의 영역으로 간주(Morrow-Howell et al., 2001),
 - 유급 노동, 자원봉사, 손자녀 돌봄, 성인(가족, 친구, 이웃 등)에 대한 비공식적인 돌봄 또는 가사 지원을 지표의 영역으로 구성함

[표 3-1] Ginevra Floridi, & Benjamin E. Lauderdale(2020)의 생산적 노화 지표

지표	Paid work	Volunteer for charities, religious or political organisation	Grandchild care	Informal care or help to sick or disabled adults
----	-----------	--	-----------------	--

<자료> Floridi, G., & Lauderdale, B. E. (2022). Pairwise comparisons as a scale development tool for composite measur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85(2).

2) Teerawichitchainan, B. 등의 생산적 노화 지표

- Teerawichitchainan, B. 등(2019)은 동남아시아(미얀마, 태국, 베트남)를 대상으로 생산적 노화 지표를 개발하여 학술논문으로 발표함

- 고령화에 따라 노인이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고 노인이 하나의 생산적 자원임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임
 - 사용한 데이터는 2012년 미얀마 고령화 조사(MAS: Myanmar Aging Survey), 2011년 태국 노인 조사(SOPT: Survey of Older Persons in Thailand), 2011년 베트남 고령화 조사(VNAS: Vietnam Aging Survey)로 60세 이상 응답을 사용함
- 지표는 경제 활동과 가족에게 제공한 지원과 돌봄으로 측정됨
 - 경제 활동: 지난 1년간 경제활동 유무
 - 가족 구성원 지원: 손자녀에게 용돈 제공 유무, 집안일 수행 유무
 - 돌봄: 손자녀 양육을 포함해 성인 가구원에게 돌봄 제공 유무

[표 3-2] Teerawitchainan, B. et al.(2019)의 생산적 노화 지표

지표	economic activity	assistance to family members: provision of money to children, Household chores	Caregiving: grandchild care, care for adult household members
설명	지난 1년 동안 일했는지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었는지 집안일에 기여했는지	손자녀 또는 성인 가구원을 돌보았는지

〈자료〉 Teerawitchainan, B., Prachuabmoh, V., & Knodel, J. (2019). Productive aging in developing Southeast Asia: comparative analyses between Myanmar, Vietnam and Thai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229, 161-171.

3) Fernández-Ballesteros, R. 등의 생산적 노화 지표

- Fernández-Ballesteros, R. 등(2011)은 노인이 수동적이고 사회에 부담이 되며 비생산적이라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은 여러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학술논문을 통해 스페인의 생산적 노화 지표를 발표함
 - ELEA(Estudio Longitudinal sobre Envejecimiento Activo; 2007)의 55세부터 75세까지 데이터를 활용하고 결과에서 55~64세, 65~75세로 구분함
- 자기돌봄과 여가 활동은 제외하고 유무급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생산적 활동으로 정함

- 지표의 내용은 성인 및 아동 돌봄, 쇼핑 및 구매, 개인/가구의 행정 관리 및 메시지, 집안일, DIY 및 수공업, 공식적인 자원봉사임

[표 3-3] Fernández-Ballesteros, R. et al.(2011)의 생산적 노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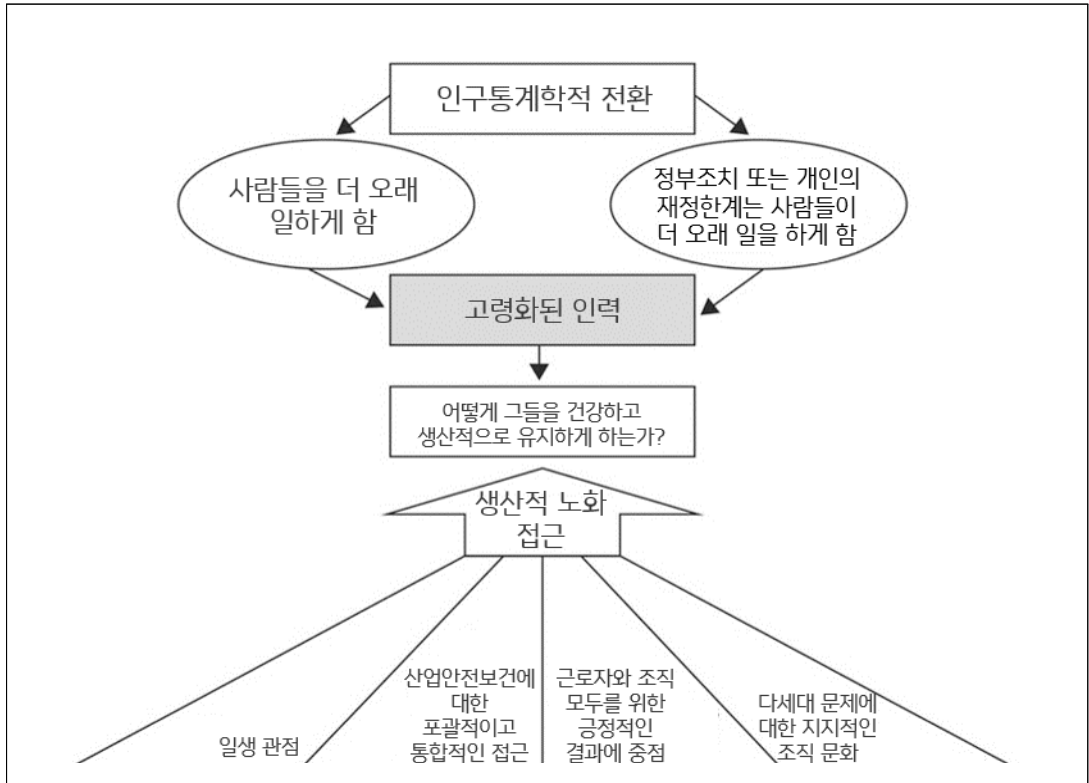
지표	adult and child caregiving	shopping, purchasing	personal/household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messages
설명	일상 돌봄, 간병 등	가정 및 개인 관리	은행 업무 도움, 계좌 관리, 집안 사무 문제 해결 등
지표	household work	DIY and handwork	formal volunteering
설명	식사 준비, 청소 등	주택 수리 등	시민단체, 정치단체, 종교단체, 사회적 자원 단체 등을 위한 봉사

〈자료〉 Fernández-Ballesteros, R., Zamarrón, M. D., Díez-Nicolás, J., López-Bravo, M. D., Molina, M. A., & Schettini, R. (2011). Productivity in old age. *Research on aging*, 33(2), 205-226.

4) Schulte, P. A. 등의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

- Schulte, P. A. 등(2018)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자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으며 노사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책 또한 필요함을 강조
 - 프레임워크는 일생 관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근로자와 조직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에 중점, 다세대 문제에 대한 지지적인 조직 문화로 구성됨
 - 수명 관점은 유전적·환경적 영향에 의해 인지 변화가 생기고 건강과 환경(교육, 습관, 활동 등)이 고용 기회 및 능력과 유기적인 관계를 전 생애 걸쳐 맺으며 그 영향이 누적된다는 관점임
 - 생산적 노화를 위해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 예방 노력 촉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함
 - 연령 차별은 고령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해결을 위한 지지적인 문화가 필요함

[그림 3-1]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



<자료> Schulte, P. A., Grosch, J., Scholl, J. C., & Tamers, S. L. (2018). Framework for considering productive aging and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0(5), 440.

2. 기타 국외의 고령지표

1) Active Ageing Index(AAI)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임(WHO, 2002)
- 이를 바탕으로 한 AAI는 UNECE의 Population Unit과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DG EMPL)이 공동으로 개발한 다차원적 종합 지표임

- AAI의 목적은 EU 국가별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의 가능성을 측정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며, 고령화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임
- 이에 AAI는 활동적 노화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모두 측정하며, 영역은 고용, 사회활동 참여,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활동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능력임. 앞의 세 영역은 현재 상황을 측정하고, 마지막 영역은 활동적 노화를 지지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을 평가함
- 이를 통해 AAI는 다면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포착해 사회적으로 더 균형 잡힌 고령화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함
- 5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별에 따른 활동적 노화 경험과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 성별로 구분해서 분석함

[표 3-4] Active Ageing Index

영역	고용 (employment)	사회참여 (participation in society)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55~59세) · 고용률(60~64세) · 고용률(65~69세) · 고용률(70~7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활동 · 자녀와 손자녀 돌봄 · 성인과 가족 돌봄 · 정치적 참여
영역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생활 (independent/healthy/secure living)	활기찬 노년을 위한 능력과 환경 (Capacity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e ageing)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운동 · 건강과 치과진료 접근성 · 물리적 안전 · 상대중위소득 · 노년층에 대한 빈곤 위험 없음 · 노인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 없음 · 독립적인 생활 ·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때 기대여명 · 55세에 남은 기대여명 중 건강한 수명이 차지하는 비중 · 정신적 웰빙 ·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 사회적 유대감 · 학력

〈자료〉 UNECE(2019). 2018 Active Ageing Index Analytical report.

2) Hartford Aging Index(HAI)

- HAI는 John A. Hartford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John W. Rowe, Dana P. Goldman, Cynthia Chen, Julie Zissimopoulos 등에 의해 개발된 고령지표로, 국가별 현재 상황과 미래 궤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정책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효과를 추적, 평가하고자 함
 - 유럽에만 한정된 AAI보다는 범위가 넓은 18개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시아는 일본만 포함됨
- HAI의 영역은 총 5개로, 생산성 및 사회참여, 웰빙, 형평성, 통합성, 안정성이며, 5개 영역을 나누어 지수를 산출하고, 경제부터 사회, 개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도록 설계함. 세부 지표는 조사대상국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채택되어 총 20개로 구성됨
 - 주관적 건강 만족이나 이웃 신뢰도는 50세부터 조사하지만, 재교육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체로 65세를 기준으로 함

[표 3-5] Hartford Aging Index

영역	생산성 및 사회 참여 (Productivity and Engagement)		웰빙 (Well-being)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참여율(65세 이상) · 실제 은퇴 연령 · 자원봉사 참여 시간(65세 이상) · 자원봉사 참여 평균 시간(65세 이상) · 재교육 참여(55~6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기대여명(65세) · 삶의 만족도(55~64세)
영역	형평성 (Equity)	통합력 (Cohesion)	안정성 (Security)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니계수(65세 이상) · 빈곤 위험(65세 이상) · 식량 안보(65세 이상) · 고등학교 이수(55~64세) · 고등교육 이수(55~6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지(65세 이상) · 이웃 신뢰(50세 이상) · 세대 간 이전(65세 이상) · 세대 간 공동 거주(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65세 이상) · 순 연금 자산 · 장기요양보호 공공 지출(% GDP) · 물리적 안전 · 정부 대외 부채

〈자료〉 Goldman, D. P., Chen, C., Zissimopoulos, J., Rowe, J. W., & Research Network on an Aging Society. (2018). Measuring how countries adapt to societal ag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3), 435-437.

제2절 국내 고령지표 검토

1. 생산적 노화 관련 지표

1) 생산적 노화 척도

- 이주일 등(2011)은 학술논문으로 후기 삶의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한 생산적 노화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함
- Caro 등(1993)의 생산적 노화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목표 지향적 활동하기, 경력개발 활동하기,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하기, 자원봉사 활동하기, 총 4가지로 영역을 구성함

[표 3-6] 이주일 외(2011)의 생산적 노화 척도

영역	목표 지향적 활동하기	경력개발 활동하기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하기	자원봉사 활동하기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 · 매일 또는 매주 해야 할 일들이 있다. ·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하는 일이 있다. · 연금이나 자식이 주는 용돈 외에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다 · 정기적으로(주급/월급) 급여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다. · 독서나 TV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 ·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특강을 수강하고 있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 간병인,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하는 자녀들의 가사 일을 도와준다. · 자녀들의 고민이나 인생 상담을 한다. ·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을 돌보는 활동을 한다. ·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 · 형편이 어려운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 ·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는 활동을 한다. · 동네나 지역을 위한 봉사 활동(눈치우기, 길거리 청소, 교통정리 등)을 한다. · 선거나 지역의 중요 행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료〉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 유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

2. 기타 지표 및 지수

- 노인과 관련이 있거나 노인의 생산활동인 고용을 다루는 지표나 지수를 중심으로 정리함

1) 노인복지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발표된 한국의 노인복지지표(정경희 외, 2002)는 한국이 노인의 기본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수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영역은 총 14개로 인구, 재정, 가치관, 보건의료, 건강, 경제생활, 소득고용, 환경, 사회보호, 권익보호, 비공식적 지지망, 사회활동, 연계지원, 자아실현 등으로 구성됨
 - 그중 생산적 노화를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와 무관한 영역은 제외하고 6개 영역(재정, 가치관, 건강, 경제생활, 소득고용, 환경)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대상인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함

[표 3-7] 정경희 외(2002)의 노인복지지표

영역	재정	가치관	건강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사회복지세출 ·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세출 ·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 정부세출대비 노인복지지출 · 사회복지세출 대비 노인복지지출 · 공동모금액대비 노인복지배분액 · 종교단체의 복지사업비 대비 노인복지배분액 · 기업의 복지사업비 대비 노인복지배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부양에 대한 태도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 가족내/고용상/사회내 연령차별 · 교육수준 · 컴퓨터 이용률 · 인터넷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L/IADL제한비율 · 65세 이후 장애출현율 · 만성질환율 · 영양상태/결식비율 · 치매유병률 · 우울감/자살률 · 주관적 건강 · 운동실천율 · 음주율/흡연율 · 건강검진율
영역	경제생활	소득고용	환경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소유액 · 월평균 가계소득 · 평균 부채액 · 소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비율 · 경로연금 · 수급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내 안전장치 설치율 ·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 편의시설 설치율 · 이동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생활비 · 월평균 용돈액수 · 주관적 경제상태 · 경제활동 참여율 · 직업별 구성비 · 중사상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지원 만족도 · 고용서비스 시설수 · 고용기관 종사자수 · 취업알선율 · 고용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 서비스 · 긴급구조서비스 만족도 · 범죄피해율 ·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 교통사고율
---	--	---

〈자료〉 정경희, 김마혜, 정순돌, 이윤경.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노인의 삶의 질 지수

- 노인의 삶의 질 지수는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등이 2017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수로, 노년기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통계자료를 구축해 국제 비교와 지속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및 환경 총 6개의 영역과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함

[표 3-8] 정경희 외(2017)의 노인의 삶의 질 지수

영역	소득	건강	교육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및 환경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빈곤율 · 경제적 박탈 경험률 · 공적연금 수급률 · 경제상태 만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실천율 ·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 건강기간 비율 · 주관적 건강 인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이수율 · 평생교육 참여율 · 여가활동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우율 · 가족관계 만족률 ·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 노인의 사회적 위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 참여율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정치적 자기역량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 노인자살률 ·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률 · 주거환경 만족률

〈자료〉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 이소정 등(2010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적절성과 충분성이 검토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정책 현장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총 영역은 7개로, 소득보장정책, 건강정책, 고령자고용정책, 사회참여정책, 물리적기반 조성정책, 노인권익보호정책, 고령친화산업정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은 거시 통계, 미시 통계, 민간 인프라 통계, 정책 통계(정책성과 측정)으로 나뉘
- 7개의 영역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고령자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9] 이소정 외(2010)의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영역	고령자고용정책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자 노동생산성 평균 퇴직연령 · 희망 퇴직연령 · 퇴직 후 전직 시 희망 임금 · 퇴직 후 전직 시 희망 분야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 ·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율 · 산업부문별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 비율 · 민간 전직지원기관 이용율 · 민간 전직 및 취업알선 기관 수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증가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급자수 ·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및 준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 고령자 고용 증가율 · 고령자 고용축진장려금 이용인원 ·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 · 정년제도 채택 사업장 비율(대기업/중소기업별, 직종별) · 퇴직 후 전직 비율 · 퇴직 후 신규 창업 비율 · 퇴직후 신규 창업 직종 ·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 노인일자리 창출 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평균 교육수준 · 신규 사업 아이템 수 · 신규 시니어클럽 수

〈자료〉 이소정, 정경희, 박보미, 신지성, 박주연. (2010).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생산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연령통합 지표

- 연령통합 지표는 정경희, 황남희, 이선희 등이 201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지표로 한국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과 연령분리 경향 정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됨. 연령통합 지표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령통합 지표는 3개의 구성요소와 9개 영역, 20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령유연성 영역은 교육, 경제활동, 사회참여로, 연령다양성 영역은 가족, 일터, 지역사회, 연령형평성건강, 교육 정보화, 소득주거로 구성됨

- 그중 생산적 노화와 관련이 깊은 경제활동, 일터, 교육·정보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부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0] 정경희 외(2015)의 연령통합 지표

영역	경제활동	일터	교육·정보화	지역사회
지표	· 연령별 실업률 ·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 직장의 근로자 연령 구성	·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비율

〈자료〉 정경희, 황남희, 이선희, 김주현, 정순돌. (2015).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중장년층 구직자 역량 진단 지표

- 구직 중인 중장년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방문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인 구직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센터의 상황과 중장년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서비스의 초기 개입 진단도구로써 구직자의 역량을 진단하는 지표를 김은석 등이 2016년에 개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로 공개함
- 영역은 기본사항, 이전 경력, 희망 경력, 구직 장애 요인, 구직태도(긴요도, 유연성, 낙관성), 직무능력(업무능력, 조직적응능력), 구직기술(구직활동, 서류/면접, 정보탐색, 교육훈련)로 구성됨
 - 그중 본 연구와 관련된 기본사항, 직무능력, 구직기술의 정보탐색을 중심으로 일부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1] 김은석 외(2016)의 중장년층 구직자 역량 진단 지표

영역	기본사항	직무능력	구직기술-정보탐색
문항	· 학력 · 소지 자격증 · 외국어능력 · 전산(컴퓨터 활용)능력	· 업무능력(희망 직업 및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 기술, 경험을 갖추) · 조직적응능력(직장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 편)	· 직업 정보(필요 능력, 근무 조건 등) 인지 정도 · 취업정보 탐색 능력 정도 · 취업을 지원할 가족, 친구, 모임의 유무

〈자료〉 김은석, 박가열, 정명진, 조아름. (2016). 중장년층 구직자 역량 진단과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2. 기타 통계

1) 고령화연구패널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년마다 조사, 발표하는 고령화연구패널은 초고령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 조사 영역은 인구, 가족, 건강 및 의료, 기능 상태 및 간병수발, 고용, 소득과 소비,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질문으로 구성됨
 - 그중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고용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12] 고령화연구패널

영역	고용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용상태 · 지난조사 이후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변동 · 지난조사 일자리에서의 퇴직, 퇴직 이후 변동 · 신규취업(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및 동일 일자리 내 변동 · 현재 일자리 특성(근로계약 내용, 계속근로, 임금출처, 정년, 관리자 여부 및 관리 인원, 근로시간/일수, 건강상의 결근, 임금,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및 퇴직연금, 복리후생, 노조, 일자리 인식 및 만족도, 이직의사) · 희망 일자리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계획 연령 · 부업/아르바이트 · 임금피크제, 계속고용제도, 고령자고용지원, 재취업교육훈련 · 구직자/비근로자(구직 여부, 취업 의사, 미취업 및 비구직 사유, 구직 사유, 구직활동, 구직시 어려움) · 은퇴자(시기, 사유, 은퇴 만족도, 은퇴 전후 생활 비교) · 자원봉사활동 · 업무능력상태 평가(최상의 상태 대비 현재의 상태 평가, 육체적/정신적 업무에 대한 자신의 작업능력 평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2020년 제8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설문지.

2) 노인일자리패널

- 박경하 등이 2022년에 노인일자리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패널 조사 설문지를 한국노인 인력개발원을 통해 발표했는데, 이는 해당 사업의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사업 참여자와 퇴직 이후 노년기의 가구구조, 복지욕구 및 생활실태, 고용형태 등을 동태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인일자리 패널의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60세 이상 노인임
- 노인일자리패널 조사항목은 가구일반 사항, 경제활동상태, 소득(자산) 및 지출, 가족, 사회참여, 은퇴과정, 사회보장 및 수급상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교육·역량을 포함한 총 9개 영역으로 구성함
- 그중 본 연구와 관계있는 경제활동상태, 노인일자리, 교육·역량 영역의 일부 문항만 자세히 살펴봄

[표 3-13] 노인일자리패널

영역	경제활동상태	노인일자리	교육·역량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한 고령자)경제활동 목적,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 근로조건,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등 ·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일할 의사,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와 근로조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역량 · 일자리 만족도 · 희망 일자리 · 정책 효과 · 계속 참여 희망 의사 · 참여 전후의 주관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 교육 역량(인지 및 참여, 만족도, 취업 여부, 중요한 내용, 기간 및 시간) · 직업 기술 역량(보유 직업기술, 관련 직종, 일자리 배치 시 고려사항, 필요한 교육, 교육의 도움 정도) ·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 기능

〈자료〉 박경하 외. (2022). 노인일자리 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3절 시사점

- 대부분의 고령자 지표 및 조사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고령자 유급 노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률, 실업률, 안정적 고용률, 노인 일자리 참여 만족도 및 참여 희망률, 임금피크제 및 계속고용제 등 제도 경험 여부, 임금/근로시간/근로환경 등 일자리 특성 및 만족도, 퇴직 연령, 은퇴계획 연령, 일할 의사, 희망 근로 조건, 직업훈련/고용 관련 기관과 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접근성, 고용정책 만족도, 연령 차별 인식 등을 다루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에 따라 생활 실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AAI, HAI 등 국외 고령 지표에서는 고령자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구성함
- 생산적 노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국내외 지표를 보면, 그 영역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가족 돌봄 및 가정 관리, 자기개발 및 관리로 폭넓게 정의하는 추세이나 지표 활용의 목적에 따라 여전히 고용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기도 함
 -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가 일터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함
- 여러 지표와 조사에서 학력, 신체 건강상태, 정신 건강상태, 정보화 수준 등 역량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어 역량 지표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
 - 그 밖에 고령자의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는 소지 자격증, 업무능력, 조직적응능력, 정보탐색능력 등이 있음
- 대중교통 만족도, 사회적 위상 등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둘러싼 환경을 조사해 이를 촉진할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제 4 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제1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의 및
개발 방향

제2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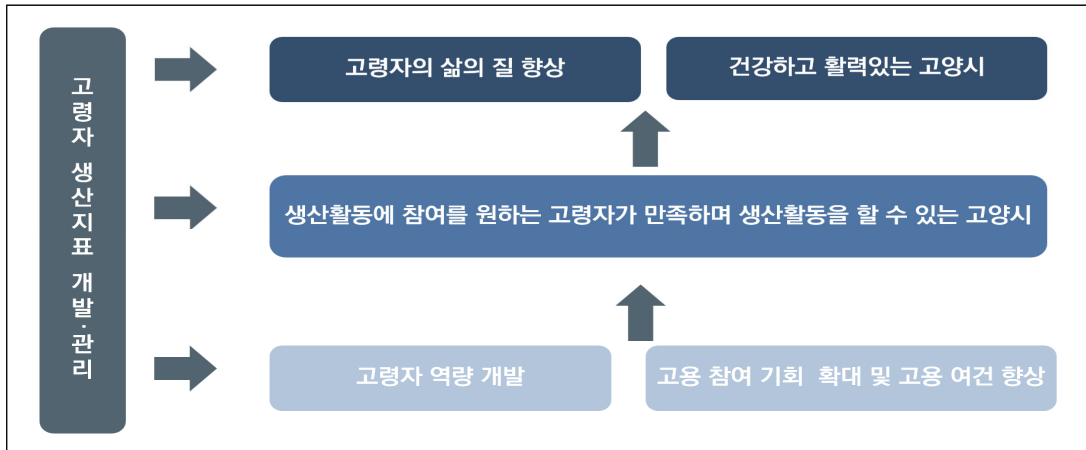
제3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제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의 및 개발 방향

1. 고령자 생산지표 정의

- 본 연구에서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지역사회 지표로서 지역 고령자의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개발 활동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고양특례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고령자 생산지표를 개발·관리를 통해 고령자 역량을 개발하고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 여건을 향상할 수 있음. 따라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언제든지 좋은 일자리에 생산활동을 할 수 있어 고령자 개인은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고양시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도시로 나아감

[그림 4-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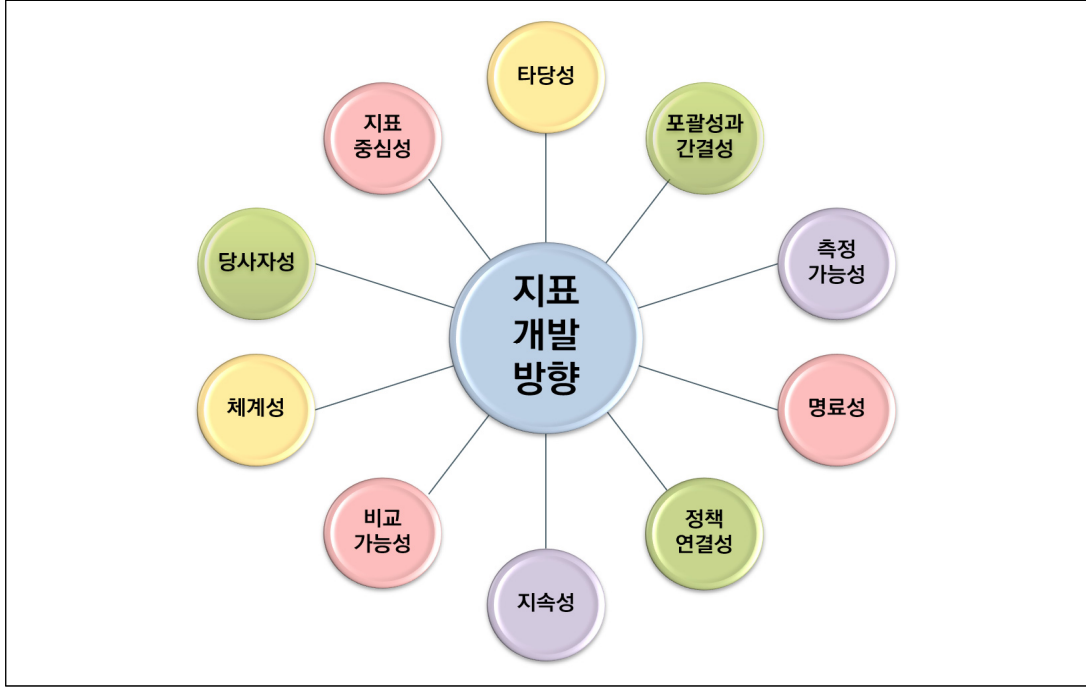


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방향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타당성, 포괄성과 간결성, 측정가능성, 명료성, 정책 연결성, 지속성, 비교 가능성, 체계성, 당사자성, 지표 중심성 등 10대 방향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타당성: 고령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 전문가 델파이를 진행하여 정확하고 실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
 - 포괄성과 간결성: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제시하여 추가 지표의 필요성을 줄이는 반면 지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표 수는 많지 않게 구성함
 - 측정가능성: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료 획득이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선정
 - 명료성: 모호하거나 어렵지 않게 지표를 구성함
 - 정책 연결성: 지표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령자 생산활동과 관련해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고 적절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연결성을 고려함. 또 필요 정책에 대한 예산 수립 및 집행,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지속성: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
 - 비교 가능성: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지표를 구성함¹⁾
 - 체계성: 지표는 결과지표와 배경지표로 구분하고 배경지표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함
 - 당사자성: 고령 당사자가 지표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고령자 개인의 생각 및 경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표 중심성: 지표 측정의 목적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려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위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음. 객관적 통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각 지역을 비교하는 종합지수는 산출하지 않고 각 항목 간 상황의 변화를 분석하는 지표 중심으로 개발함

1) 추후 전국 지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4-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10대 개발 방향



제2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령 당사자 2개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생산활동의 경험, 필요한 정책 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와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지표의 초안을 작성함
-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델파이 1차를 진행하고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델파이 참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표를 추가, 삭제, 수정, 보완함. 델파이 3차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연구진이 최종 지표를 확정함

[그림 4-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당사자 FGI	지표 초안 구성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전문가 델파이 3차 조사	지표 확정
75세 미만 1그룹 75세 이상 1그룹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당사자 FGI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지표 초안 구성	고령자 고용 전문가 20명	고령자 고용 전문가 20명	고령자 고용 전문가 20명	델파이 3차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지표 구성
2023.07.28 실시	2023.07.28. ~2023.08.20	2023.08.21. ~2023.08.28	2023.09.20. ~2023.10.05	2023.11.08. ~2023.11.14	
-고령 당사자가 생각하는 생산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생산활동의 경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고용 영역, 역량 및 교육 영역으로 구성 -결과지표와 과정지표로 구성 -과정지표는 욕구, 정책, 사회문화 특성 지표로 구성	-지표 초안에서 추가, 삭제, 수정, 보완할 지표 조사 -지표별 중요도 평가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제시 -지표별 중요도 평가 -지표 영역 구분에 대한 의견 수렴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 제시 -지표별 중요도 평가	-2개 영역, 46개 지표 최종 확정 -각 영역은 결과지표와 배경지표로 구성 -배경지표는 개인차원과 사회차원(정책, 사회문화 환경)으로 구분

2. 고령 당사자 FGI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집단별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생산활동에 대한 고령 당사자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방법

- 고령 당사자 FGI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에는 75세 미만 고령자 5명, 2차에는 75세 이상 고령자 5명이 참여함
-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하고 인터뷰가 끝난 후 답변 내용을 통합하여 조사 내용을 완성함

[표 4-1] 당사자 FGI 참여자 정보

회차	일시	구분	성별	연령	노인일자리 참여 경력
1	2023.07.28. 10시 30분	1	남	72	3년
		2	남	73	4년
		3	여	73	5년
		4	여	73	10년
		5	여	71	2년
2	2023.07.28. 13시 30분	6	남	76	2년
		7	남	84	9년
		8	남	76	10년
		9	여	76	10년
		10	여	76	8년

2) 조사 결과

□ 생산활동의 의미

- 참여자들에게 생산활동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성과물이 나오거나 급여를 받는 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급여를 받지 않아도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봉사활동이나

간접적으로 자녀의 지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 손자녀 돌봄도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음

- 아웃풋이 있고 급여를 받는 활동이 생산활동이라는 의견

“일하는 거가 생산활동. 일자리가.” <참여자 3>

“글쎄 생산 활동은 뭐 활동을 하면서 돈도 좀 급여를 받는 거” <참여자 6>

“근데 지금 우리 행주농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일들이 이거는 또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아웃풋, 성과물을 내는 건데 최적이지 아닌가 나는 그런.” <참여자 8>

- 봉사활동, 손자녀 돌봄 등도 생산활동이라는 의견

“저는 이제 뭐 만들어내고 딱 그런 것보다도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게 하는 게 생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것도 있을 거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 머리쪽으로 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냥 뭐 노인으로만 챙기는 것보다도 분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있을거고 집에서 나와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생산적인거죠.” <참여자 4>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바깥활동을 하니까 애를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지출을 우리가 줄이는 거니까 그게 생산적이죠.” <참여자 10>

□ 일의 효능과 고령자의 일자리

- 고령자가 일을 하는 경우와 일은 하지 않고 여가 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경우 어떤 삶이 더 행복한지에 대해, 대부분 일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답했음. 대부분 금전적인 만족감이나 필요보다는 행복, 성취감, 뿌듯함과 같은 정서적인 만족감, 무료하지 않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것,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친구를 사귀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 형성,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 가족에게 인정받음 등이 일의 효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정서적인 만족감

“일하는 게 더 행복하죠. 어쨌든 일하면 우선 우리가 조금 나의 용돈도 낼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젊었을 때 다 벌어들였고 노령에 잘 살 수 있는 뭐가 돼 있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할진 모르겠지

만 그렇지 않으면...” <참여자 3>

“가정에서 손주를 이렇게 가정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활동이 더 좋아요.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은 있어야 되고 내가 나와서 활동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자부심. 그리고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나이 차이는 좀 있어도 같은 이제 모이는 어르신 그 속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참 즐거워요.” <참여자 4>

“봉사활동이라는 건 저도 복지관에서 했는데 봉사활동은 좀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매일 보수 없이 봉사활동을 한다. 보수가 조금이라도 주는 거에서 내가 사회활동을 한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저는 이거를 선택할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사람인지라 봉사만 한다는 거는. 그걸 성취감이라고 하나요? 그게 더 생산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참여자 5>

“용돈벌이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도 좋고 또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의 또 건강 유지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참여자 6>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좀 일할 수 있는 나이구나 하는 스스로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그날 일하고 갈 때 오늘도 내가 사회에서 뭘 했구나 하는 듯한 것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꼭 돈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일하는 그 생산이 굉장히 힘든 일이 그런데 그 힘든 걸 모릅니다. 나갈 때 또 오늘도 하루가 참 뜻 있게 보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7>

“근데 이제 봄 가을로 혼자 이제 저기 이렇게 쪽 길로 걸어오잖아요. 그렇게 행복감이 넘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혼자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무실에 있어서 아니 그냥 출근이니까.” <참여자 8>

- 일은 무료하지 않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줌

“저도 일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죠. 나이를 먹었어도 그런 여유가 있어도 계속 일할 것 같아요. 건강도 이제 아무래도 유지되고 일을 안 하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 거고.” <참여자 2>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서도 그래요. 일주일에 우리가 두 번을 나오거든요. 참 좋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을 가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면 시간도 금방 가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 다 지루한 줄 모르죠.” <참여자 1>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복직을 하기를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 만약 복직을 안 하고 우리

이 나이에 이제 뭐 어디 가서 뭘 할 겁니까? 집에서 만약 그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고 보면은 안정을 취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더 소멸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그만큼 활력을 찾는 거예요. 활력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선순위가 최고고.” <참여자 8>

- 일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활력이 있고 여기 오면은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정보도 그렇게 하고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좌우지간 좋은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용돈 버는 것도 포함되고.” <참여자 10>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오늘도 사실은 그래서 나왔거든요. 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처럼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몸이 좀 안 좋다가도 여기 나오면 그 아픈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고 나와서 또 얘기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일도 그냥 하면 정말 몸이 안 좋던 것도 더 좋아져요” <참여자 9>

-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 가족에게 존경받음

“그런데 존경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도 그렇고 여기 앞에 앉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을 보태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참여자 7>

○ 다른 연령대와 경쟁하며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령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젊은층이 할 수 있는 일과 다르고 고령자는 고령자만의 장점, 즉 성실함, 인내심, 전문성 등이 있어 그들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

-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갖는 장점이 있어 고령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

“저는 우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주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4>

“지금 젊은이 일은 과학적이고 지능적이니까 다 그제 하지 않습니까? 그 하고 노인들 일자리는 노인들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못하는 것 또 하기 싫어하는 것 이런 일자리가 많잖아요. (...) 노인들 일자리는요. 뭘 새로 신규로 개발한다 새로 생긴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안 하는 곳에 노인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그게 그런 거지.” <참여자 7>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기여하는 거 하고 노인들이 기여하는 거 하고 틀리는 게 아니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 <참여자 5>

“우리가 하는 일을 젊은 애들이 와서 시키면 일주일도 못 버티 나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도 자부심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와서 일하는 거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 일하는 데 더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젊은 사람 못지 않게. ” <참여자 2>

“그 일에 대한 애착이 더 있죠. 그래서 더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 같은 분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일 같아요. 근데 그것도 유치원에서 그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와서 이 거기에도 물론 저기 교육은 시키지만 거기에 전문직했던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문성이 거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제 만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하는 게 있더라고요.” <참여자 3>

- 젊은층과 경쟁이 아무래도 신체·정신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주였으나 일부 참여자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충분히 함께 경쟁하며 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젊은 사람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움

“그렇게 넘봐보지는 못할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들은 어른들 일을 하고 그래야죠.” <참여자 9>

“그래서 여기서 시니어니까 우선 나이 먹은 사람들을 그래도 우대를 좀 해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거기 젊은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니까 거기 가면 치일 수가 있잖아요.” <참여자 4>

“능력은 있지만 젊은이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살뜰하고 머리도 잘 이렇게 회전되고” <참여자 5>

- 젊은 사람과의 경쟁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

“같이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냥 아무래도 이 머리카락이나 저기가 손이나 이런 게 좀 떠요. 모든 동작이 좀 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는 거라면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 그렇게 못지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 고령자 일자리의 조건

-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중 어떤 형식이 고령자에게 더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도 민간일자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고령자의 채용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민간에서 만들 필요가 있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민간 기업에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기업에서도 생산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노인 일자리가 해결되잖아요.” <참여자 1>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그 기량을 그냥 멈추지 말고 어떤 다른 개인 기업으로 또 흡수해서 그걸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자 10>

“장애인 자리 어느 기업체에 장애인 자리 한두 명 자리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 기업에서 65세 70대 넘는 사람들 중에도 두 자리 세 자리 마련해봐라.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러 온 사람이라 취급 안 하고 정규적으로 받을, 직원으로 취급받을 수 있게.” <참여자5 >

- 희망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물었을 때, 참여자들은 일주일에 2~3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희망했고 풀타임이 가능하다더라도 근무일은 2~3일을 선호했음. 이는 취미 활동하기, 친구 만나기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글쎄 저도 두 번 정도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제가 볼 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참여자 7>

“아주 풀타임은 힘들고 3일정도면 내가 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체력은 뭐 괜찮아요.” <참여자 3>

“일주일에 두 번 나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나오고 하루는 또 이제 나름대로 취미 활동을 하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조금씩 할 일도 있고 하니까 텃밭을 가꾼다든가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하니까 시간이 일주일이 그냥 모자라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도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저는 5일 3시간씩. 최대 5시간이 좋아요. 제가 지금 3시간인데 제가 1시부터 4시까지거든요. 제가

저기 오전에 할 수도 있는데 1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오전에 시간이 이제 남는 거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고.” <참여자 5>

“저도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횡수를 늘려서 상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못 해. 딱 이틀에서 삼일. 남으면 내 할 일 하고.” <참여자 2>

- 한편 주 5일을 일할 경우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체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힘. 급여가 늘어나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음

“여기서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면 아무리 고임금을 준다고 해도 못해요.” <참여자 8>

“일주일을 하라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개인 일을 못하니까. (...) 여기서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더는 못해요.” <참여자 9>

□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과 당사자 인식의 차이

-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가 고령자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생산성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사회가 나이 먹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허드렛일, 청소 등 단순한 일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가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설명함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젊은층 사람이 우릴 보기에는 사랑방 노인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어느 거를 시켜줘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노인네들이 생산 활동하고 있어도 그 생각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우리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우 그 노인네들이 하는 거는, 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노인네들이 그냥 허드렛일이나 조금 도와주는 걸로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참여자 5>

“70 넘으면 못 당기니까 쓸모가 없다 생각해서 청소나 하고 길바닥이나 쓸고 그다음에 그런 거밖에 시켜주지 않아요. 자기 전문적인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일을 하려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참여자 1>

“그분들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하지 말고 뭘 이렇게 딱 데서 무슨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요구를 하지만은 또 저쪽 주는 사람들은 노인들

한테 줘가지고 잘못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일거리를.” <참여자 7>

“당연히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직접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을 받죠.” <참여자 2>

- 그러나 참여자들은 신체적으로 나이를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지와 마음만큼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나이만을 기준으로 ‘어르신’이라 부르는 등 자신들을 늙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으며 결국 사회가 노인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사회가 노인을 정하는 나이인 65세는 청년이라고 생각함

“근데 우리가 나이는 먹는데 마음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편을 봤을 때 같은 동갑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늙었지?’ 속으로 그래요. 나도 그만큼 늙었는데 인지를 안 하고 그냥 젊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서 사회에서 일하면 아무래도 안 돼죠.” <참여자 4>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 강사 시청에서 이렇게 오는 거더라고요. 영어, 수학 강사 있는데 말 끝에 나보고 어르신이라고 그사람 나이가 50이예요. 그사람 눈에는 내가 선생님 이 아니라 어르신 그런거죠.” <참여자 5>

“지금 사회적으로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노인네 취급을 하잖아요. 그거부터 우선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65세 넘으면 노인이라 해갖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우리 65세 넘으면 그러는데 70세 넘으면 더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너무 노인을 빨리 잡아놓는 거죠. 노인을 만드는 거예요.” <참여자 1>

“청춘. 65세는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2>

- 한편 일이 아닌 교회와 같은 사적 활동을 할 때도 60대가 된 이후로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자신을 어려워하고 잘 다가오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음. 이 역시 본인이 생각하는 역량과 별개로 사회 분위기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에 이제 애들 가르쳐주는 일을 30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50대까지는 그래도 부장이다 하면은 부장님이니깐 이게 해주는데 60 넘어서는 애들이 가까이 안 와요. 선생님들도 내가 있으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있지를 못해. 나는 아직도 분명히 있고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데 주위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참여자 4>

□ 일할 때 어려움

-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체력적 한계와 육체적으로 고됨을 꼽았음. 예를 들면 장시간 앉아서 일하면 지쳐있다거나 작업복 때문에 여름에 매우 덥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고 답했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제일 어렵죠. 내 분야는 이제 미싱이니까 하루종일 앉아서 이제 이걸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이렇게 서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요거를 하니까 그게 좀.” <참여자 4>

“다른 데보다도 아마 노인들께서 일거리를 만드는 곳에서 우리 거기 2층에 하는 식품 짜는 데만큼 세밀하게 하는 데는 드뭅니다. 거기는 정말 하나 옷 하나 입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웠냐 하면은, 얼마 전에 굉장히 더웠죠. 우리 전부 다 나이가 다 70대 원로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안 먹습니다. 왜 안먹냐. 나가려면 나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물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안경 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도 지금 아침에도 전부 다 세탁을 하고 전부 다 소독약을 다 바르고 다 합니다. 옷도 이만큼 다 들고 끼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쓰고 여기 마스크 끼고. 덥죠. 그렇게 함에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게 지금 이것도 우리가 사회 봉사하고 나도 이걸로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옷 다 갈아입고 가야 되니까 가고 손 씻고 뭐 다 하려고 하면 귀찮아서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 7>

- 한편으로는 자신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음. 노인일자리로 배정받아 일하는 돌봄기관에서 자신의 업무는 단순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고 그 시간도 짧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들도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며 선생님보다는 할머니 취급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밝힘

“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뻘히 알잖아요. 선생님이랑 저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암만 애네들한테 접근해서 할려고 해도 애네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내 앞을 지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내가 아무리 개를 돌봐준다고 그래도 할머니 취급을 해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받아주는 아이들이. 위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1시에 가서

4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5시간 이런 교대로 모든 걸 전담으로 해서 오늘 급식을 하느냐 내일은 안 나오냐 이런 거 다 관리를 애들 관리를 하잖아요. 엄마들하고 근데 저희는 그냥 가서 애들이 서로 싸우거나 다치지 않게 돌봐주고 위치예요. 애들이 이게 뻔히 보면 알잖아요.”
<참여자 5>

□ 일할 때 필요한 역량

- 참여자들은 일할 때 인성, 성격,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등 대인 관계 역량이 일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평가를 통해 선발되는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특히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업무 수행 능력만큼 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일단은 같은 걸 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에 다니는 사람은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위에 사람이 이제. 면접관이 누군지까지 그렇게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거기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거까지. 인정을 하는거죠.” <참여자 4>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빨 아픈 것하고 사람 보기 싫은 것하고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서로 이제 손발이 잘 맞으면서 성격이라든지 인성 문제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성향이.” <참여자 8>

“여기는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안 나오게 되는 사람 보면은 약간 좀 인성 문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하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참여자 10>

- 참여자들은 ICT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본인들이 이를 배워서 능숙하게 해당 능력을 활용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그러나 앞으로는 ICT 활용 능력이 중요한만큼 활용 능력을 갖춘 고령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음. 반면 과거에 컴퓨터를 다루는 교육을 받았던 참여자들은 이전에 능숙하게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 컴퓨터 대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많이 까먹었다고 답했음. 이는 충분한

교육과 활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령자도 ICT 활용 능력을 기르고 관련 일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가나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를 벗어나서 디지털 시대 아십니까? 모니터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 키보드를 만지는 데 자신이 없으니까 다행히 이제 태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이 나이에 와서 그냥 그냥 포기를 하죠. 그냥 이 나이에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자고 이걸 하겠냐.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우리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노련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참여자 8>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노인들도 그런 컴퓨터 거를 이렇게 자기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있는 게 아마 그런 쪽으로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들이 지금 뭐 컴퓨터나 뭐 해서 배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육 안 받아 봤어요.” <참여자 6>

“그전에는 메일도 주고받고 다 했어요. 그리고 풍선도 만들어서 뭐도 하고 막 많이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핸드폰 나오면서 그냥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다 잊어버렸어요.” <참여자 9>

“오히려 스마트폰이 아니고 옛날에 컴퓨터 했을 때는 그런 거 오히려 잘 쳤어요. 이메일 보내서 막 막 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 10>

□ 적정 정년 연령과 희망 퇴직 연령

- 참여자들에게 정년으로 적당한 나이가 몇 살인지 물었을 때 70대도 일 할 능력이 있고 과거와 달리 젊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70대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므로 60대에 정년을 맞기엔 너무 이르고 70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대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가 빠져줘야 하기 때문에 일하기에 충분히 건강하고 아쉽지만 60대가 적정 연령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현재 60대 정년은 빠른 편이라 70대로 늘려야 함

“좀 빠른 것 같아요. 60대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한 70. 60은 너무 젊고.” <참여자 10>

“글쎄요. 제 생각은 요즘 사회에서는 한 70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참여자 6>

“지금 100명을 모아놓고 70살인 사람한테 당신 노인이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럼 과거하고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도 70대가 가장 맞지 않느냐.” <참여자 7>

- 현재 60대 정년이 적정함

“60 정도가 지금 현재가 맞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젊은 애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앞 물결이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국 고전에 보면은 앞 물결기는 뒷 물결기가 밀어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근데 밀린 사람 입장으로 봐서 이제 사실 한참 일할 수 있고 건강도 그러는데 좀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참여자 8>

○ 참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락하는 데까지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80세에서 8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음

“80 정도 되면 은퇴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하는 일은 그래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점도 많이 있거든요.” <참여자 1>

“나도 85세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이 받쳐준다면.” <참여자 3>

“글쎄 뭐 건강이 허락한다면 85세까지도 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6>

“내가 가진 그걸 보면은 앞으로 85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자 7>

3) 조사 결과 분석 및 함의

○ 조사 결과는 주제별로 생산활동의 의미, 일의 효능,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 고령자 일자리의 조건,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과 당사자 인식의 차이, 일할 때 어려움, 일할 때 필요한 역량, 적정 정년 연령, 희망 퇴직 연령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소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2] 당사자 FGI 주요 결과

주제	소주제	내용
생산활동의 의미	아웃풋이 있고 급여를 받는 활동	성과물을 내고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것
	급여를 받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	봉사활동, 간접적으로 자녀의 지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 손자녀 돌봄
일의 효능	정서적인 만족감	일을 함으로써 생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동한다는 자부심, 성취감 등을 느낌 일할 수 있다는 위안과 사회활동을 했다는 뿌듯함 출근하는 것이 행복함
	무료하지 않고 활기찬 일상	활동량을 늘리며 활력을 갖고 지루하지 않게 하루를 보냄 활동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됨
	사회적 관계 형성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나눌 수 있음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 가족에게 존경받음	나이를 먹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힘을 보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에게 존경받을 수 있음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	고령자만의 장점이 있어 고령자만의 일이 있음	젊은 세대가 하지 않는 일을 고령자가 주로 함 젊은 세대보다 고령자가 더 성실하고 고된 일을 참아낼 수 있음 옛날이야기 구연하기 등 고령자가 더 전문성을 가지는 영역이 있음
	젊은 세대와의 경쟁이 부담스러움	젊은 세대와 경쟁하면 고령자가 더 치일 수 있음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 자신이 있음	머리와 손은 비교적 굵뜨지만 어느 정도 기능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음
고령자 일자리의 조건	민간일자리 확대 필요	고령자도 민간일자리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장애인의무고용제와 같이 고령자의 의무 고용 정책이 필요함
	주 2~3일에 파트타임 근무 선호	일주일에 2~3일 파트타임을 희망함 풀타임이 가능하더라도 근무일은 주 2~3일을 선호함 취미 활동하기, 친구 만나기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과 당사자 인식의 차이	사회는 고령자에게 생산성을 기대하지 않고 고령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음	사회는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일, 허드렛일이나 도와주는 능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함 사회는 고령자에게 일을 주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해 일거리를 주지 않으려 함 고령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일할 기회가 없음
	신체적으로 나이를 먹을지언정 의지와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마음만은 젊지만 사회에서 이 마음으로 일하기 어려움 65세가 넘으면 노인이라 부름으로써 사회가 노인을 만드는 것임 65세는 청춘이라 생각함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음 느낌	주변에서 나이를 이유로 어려워하고 잘 다가오지 않아서 활동하기 어려웠음
일할 때 어려움	체력적인 한계와 육체적 고됨	장시간 앉아서 일하면 지침 작업복 때문에 여름엔 매우 덥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을 못 감

주제	소주제	내용
	자신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 때문에 힘들	센터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나이 등을 이유로 아이나 어른 모두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힘들
일할 때 필요한 역량	대인관계 역량의 중요성	일할 때 인성, 성격,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함
	ICT 활용 능력이 중요하지만 당장 이를 배우고 활용하기 어려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배우기 쉽지 않아 포기함
	ICT 활용을 이전엔 능숙하게 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많이 까먹음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지금은 컴퓨터로 하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림
적정 정년 연령	60대는 이르고 70대가 적당함	과거와 달리 70대도 일할 능력이 충분하고 과거의 70대보다 젊음
	지금 기준인 60대가 적당함	아쉬워도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앞선 세대가 빠져줘야 함
희망 퇴직 연령	80대까지 일하고 싶음	신체적·정신적으로 허락한다면 80~85세까지 일하고 싶음

○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고령자들은 주로 성과물을 내고 급여를 받는 유급활동을 생산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외 봉사활동이나 간접적으로 자녀의 지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생산활동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생산적 활동은 다양한 가정 및 사회 기여의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고용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고령자들은 일을 통해서 성취감, 위안 등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고 있으며, 일을 하는 시간을 통해 무료하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또한 일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활성화 필요가 있음
- 고령자는 젊은이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고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젊은 세대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음. 고령자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 고령자의 취업을 위해 민간일자리 확대가 필요하고 고령자 취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고령자가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풀타임보다는 건강 유지와 개인의 여가생활가 가능한 주 2~3일의 파트타임이므로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생산적 역량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낮고 이는 고령자의 고용과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므로 고령자의 역량을 잘 평가하여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관계 역량, ICT 활용 역량은 고령자 생산활동에 있어 필요한 역량이므로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생각하는 정년 및 희망퇴직 연령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함

3. 전문가 자문

1) 자문 개요

□ 자문 목적

-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내용과 기능 등이 적절한지 파악하기 위해 노인복지 및 경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더욱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자문 참여자

- 사회복지, 고령자 고용, 경제 분야의 전문가 총 6명이 2023년 4월~7월 중에 대면으로 의견을 제공함

□ 자문 내용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방향, 범위, 대상, 내용과 구성 등에 대해 자문함

2) 자문 결과

□ 지표명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에 대한 의견

- 전문가들에게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라는 지표명을 듣고 지표가 어떤 내용이 예상되는지 물었을 때 생산이 고용과 관련이 깊어 고령자의 고용에 대한 지표일 것이라 답함
- 노화, 노인보다는 고령자라는 단어 사용이 적절하며, 베이비부머를 기점으로 역량이 높고 자기효능감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고용에 관한 지표 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앞으로 고령자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의 초점을 유급노동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다만 생산을 강조하는 지표명 때문에 지표 개발 및 관리가 사회적 비용 경감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일 수 있으니 지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표의 방향성

- 전문가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어떤 욕구를 파악하고 보여줄지 등 지표의 방향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함
- 지속가능성, 연령 주류화 관점, 연령 통합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영역

- 생산적 노화 이론에서 다루는 고용, 자원봉사, 시민참여, 돌봄, 직업교육, 역량 등을 모두 포함하면 지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지표의 목표도 희미해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음. 이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고용에만 초점을 맞춘 심층 지표를 개발하여 타 고령지표와 차별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대상 및 지표의 구분

- 대상의 경우, 전문가들은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해 지표를 연령대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함

- 지표를 결과 지표와 선행 지표로 구분한 설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선행 지표라는 말이 생소하므로 과정 지표로 바꿀 것을 제안함

□ 고용 영역의 지표 구성

- 전문가들은 고용 영역의 세부적인 지표들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특히 고령자의 민간 일자리를 별도로 파악해야 하며 노인일자리를 고용 영역에 포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함
- 고령자의 근무시간을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용과 관련된 만족도로 고령자 일자리의 질을 파악해야 하며, 개인 역량에 부합하는 고령자 일자리가 있는지 파악할 것을 제안함
-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인 계속고용제,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나 환경을 알 수 있는 지표이므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취업 의사와 고용률을 비교하며 의미를 찾을 것을 제안함

□ 역량과 교육 영역의 지표 구성

-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의 역량, 취업 관련 교육 현황, 고령자의 근무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할 것을 제안함

□ 주요 결과 요약

[표 4-3] 전문가 자문 주요 결과

주제	내용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들이 얼마나 일자리에 투입되었는지, 고용 현황, 경제소득 창출, 건강 등 고용효과를 비롯해 고용과 관련된 지표로 생각됨 • 고령자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생산은 고용과 관련이 깊음 •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고 있고 역량이 매우 높은 인구집단임. 자기효능감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함.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고용이었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함 • 고령자, 고령의 개념에 공감. 노화라는 표현보다 고령이란 단어를 쓰는 게 더 타당함 • 고령자에게 일자리 정책은 중요한 복지이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능력치와 일할 의사 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함. 생산가능인구에서 노인을 제외하는 것을 재고해야 함. '생산'의 포커스가 유급 노동에 있다고 생각함 • 생산지표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적 비용 경감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게 됨

주제	내용
지표의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사회로 향할 때 우리 사회의 목표를 고민해야 함. 지표는 실태와 다름.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함 •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그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당사자 외에 기업체, 지자체 측면에서도 세분화하여 살펴봐야 함 • 지속가능성을 주요하게 활용할 것. 고령화와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둘 다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임 •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도 중요함. 남녀 간 평등을 보는 젠더주류화처럼 연령에서의 평등을 살펴보는 연령 주류화 관점도 필요함. 다방면에서 노인에게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는지 살펴볼 것 • 연령 통합이라는 시각을 반영해서 고령자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까지 고려할 것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적 노화 이론에서 포함하는 고용, 자원봉사, 시민참여, 가족돌봄 가사활동, 직업교육, 역량으로 가면 너무 포괄적이고 임팩트가 부족함. 생산적 노화 이론에 기반하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함. 정책을 실행하고 지표가 기준이 되어 사회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에 집중해야 함 • 생산적 노화에서 포함하는 영역 자체가 매우 큼. 어디에 더 중점을 둘지 어떻게 특화할 지를 결정해야 함. 이에 고용만 채택해서 심층지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표의 영역은 선택하는 것이므로 지표의 목적과 의도에 맞추어서 이에 차별화된 지표를 구성해야 함.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보단 생산과 관련된 역량에 집중해야 함. 다 포함하면 차별화하기 어려움. 비판이 있을 순 있지만 다른 지표에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 지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함 • 고용, 사회참여, 돌봄, 교육과 역량까지로 하면 영역의 폭이 넓음. 돌봄이 생산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는가. 지표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함
대상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의 대상을 나누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함. 베이비부머를 고려할 때 집단 간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임
지표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지표라는 말이 생소하긴 함. 결과/과정이 더 적절할 것 • 결과지표와 선행지표 등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은 좋음
고용 영역의 지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일자리와 노인일자리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함.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함 • 노인일자리를 꼭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함. 노인 일자리는 노인의 사회참여 복지 영역에 포함됨. 최근 학계와 현장은 그 방향으로 보고 있음. 고용으로 넣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함 •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함 • 고용과 관련된 만족도도 지표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음 • 근로시간형태의 만족도도 괜찮으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장시간 근로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주 40시간, 주 52시간 등 기본 근로 시간을 넘어서서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고양시에는 고학력자가 많고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높아 일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수준이 안 맞아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고려해야 함.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가 자기 기준/수준에 안 맞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추가를 고려해보아야 함

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고용제, 임금피크제는 환경을 알기 위한 적절한 지표임. 임금피크제가 현실에서 이상적으로 진행되진 않으나 공공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고 국가 주요 정책이므로 빠진 어려움. 현실보단 취지를 볼 땐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지표로 하고, 제언에서 실효성을 지적할 수 있음 • 실업률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면 취업 의사 질문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취업 의사와 고용률을 함께 비교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역량과 교육 영역의 지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 오프라인 위주 활동이라 온라인 활동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활용도, 이용률, 접근성(공공와이파이) 등. 온라인을 통한 구인구직도 많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음 • 취업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고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이므로 고려해야 함 • 환경적으로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가까운 화장실, 휴게시설, 쉬는 시간 등. 대중교통 환경 조성도 고려할 것

4. 지표 초안 도출

○ 문헌 검토, 당사자 FGI,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연구진이 다음의 초안을 도출함

[표 4-4] 고용 영역 초안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결과 지표	고용률	전체 고령자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근로안정성 (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저임금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 (월평균 임금/ 주당 근무시간*4 < 시간당 최저임금)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 전반적인 만족 정도	
	산업 부문별 고령자 고용 비율 편차	산업부문별 전체 종사자 중 고령자 비율의 편차	
	장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비율	장시간 근로(주40시간 초과)를 하는 고령자의 비율	
과정 지표	욕구	현재일자리 지속 의사(취업자 대상)	취업자 중 현재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고 싶은 고령자 비율
		취업 의사(비취업자 대상)	비취업자 중 취업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비율
		희망 퇴직 연령(장래 근로 희망 연령)	일하고 싶은 최대 나이
		희망 근로시간형태	전일제 또는 시간제 중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의 비율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정책	구직자 역량 대비 고령자 일자리 수준 평가	구직자의 역량(지식, 기술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고령자에 많는지 평가	
	고용서비스 시설 수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취업알선기관 등) 개수	
	고령 일자리 관련 조례 수	고령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 개수	
	취업정보 접근도	고령자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편한 정도	
	공공일자리 수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 수 (노인일자리, 신중년일자리)	
	민간일자리 수	사업체 종사자 수	
	계속고용제 시행 기업 수	정년연장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체 수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체 수	
	사회문화 특성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고령자 고용에 있어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	직장에서 연령을 이유로 고령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설계 여부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노동환경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비율	

[표 4-5] 역량과 교육 영역 초안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결과 지표	학력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고령자 비율	
	월 소득수준	가구의 월 소득수준	
	신체건강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정도	
	ICT 활용 정도	일상에서 ICT(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용 기술)를 활용하는 정도	
	ICT 직무 역량 수준	ICT를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자격증 보유 개수	보유한 자격증 개수 (갱신기간 확인, 운전면허(2종 보통) 제외)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	고령자가 자신 포함 동년배의 노동생산성을 평가하는 수준	
	대인관계 능력	업무나 단체활동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감정 및 행동 조절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유무	
과정 지표	육구	직업 및 재취업 교육 희망 의사	직업교육이나 재취업교육을 받을 의향 유무
	정책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직업교육훈련 접근도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하기에 편한 정도
	직업교육훈련 참여 재직근로자 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고령재직근로자수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직장외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고령자 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수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 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개수
사회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사회 전반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대중교통 및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5.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1) 조사 목적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타당한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확정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함

2) 1차 델파이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 고령자 고용, 경제, 노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20명임
- 총 3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는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시행되었고 100%의 회수율을 나타냄
- 우선 본 연구의 목적, 주요 개념 등 연구개요를 소개하고, 각 영역의 개별 지표에 따른 중요도를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중요함) 사이로 응답하게 함. 또한 각 영역 중 초안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지표와 그 이유, 삭제해야 할 지표와 그 이유, 추가해야 할 지표와 이유를 개방형으로 물었음

□ 고용 영역의 1차 조사 결과

- 고용 영역의 지표 중 취업정보 접근도가 4.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고용률 4.50점, 취업 의사 4.45점, 공공일자리 수 4.45점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반면 산업 부문별 고령자 고용 비율 편차가 3.20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낮았고 이어 장시간 근로자가 3.35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 3.40점 등으로 나타남

[표 4-6] 고용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고용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결과지표	고용률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자 연령대를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근로안정성 (정규직 비율)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가 부정확함. 정규직은 계약직, 비전형,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삭제 하거나 계약직 비율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정규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수정 필요 • 전체 취업자 중 전일제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율로 수정. 임금근로자 중 비율로 한정할 이유 없음. 기존 지표로는 시간제 정규직 등의 모호한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포함될 수 있음. • 고령자 다수는 이미 은퇴하고 재취업하였거나, 계속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임. 공공일자리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즉, 일반적인 정규직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노년기 근로안정성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지표인 지 검토 필요. 정규직의 정의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년퇴직 후의 고용에서는 정규직 비율보다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하기를 원할 때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지가 더 중요함 •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고령자들은 정규직을 바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어도 일 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임 • 정규직으로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자유로운 채용과 이직이 근로 안정성에 도움이 됨 •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들의 고용 상태를 상근, 비상근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기에 '근로'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함(ex: 고용안정성) • 근로안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65세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이 거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이 더 적절함. 이 또한 극히 적어서 지렛값이 낮아질 수 있어 이 지표 대신 65세 이후 근로기간이 좋을 것 같음
	저임금근로자 비율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고용에서는 최저시급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의 비율도 따져야 함 • 상대적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쓰는 것이 적절함 • 저임금근로자는 1LO 기준과 같이 중위 임금 2/3 미만을 받는 근로자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로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 있음 • 65세 이상은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월, 주, 하루, 시간당 최저임

[고용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금율 모두 명시할 것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임금 수준, 업무 내용, 근로 시간 등) 만족도 지표가 정책 제언으로 연결하기 쉬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라는 지표는 합리적이지만 현실에서 고령자, 특히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는 일자리 만족도를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음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급여수준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일자리 만족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관적 지표를 다수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만족도 영역을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주어진 업무에 대한 만족도, 근무시간이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 임금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지표로 구성해볼 것을 제안함
	산업 부문별 고령자 고용 비율 편차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구분을 세세분류 수준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수차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기존 2차 자료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실익이 적지 않을까 우려됨(삭제 필요) 고령자 비율이 아니라 편차를 확인하려는 이유가 궁금함. 산업 부문별 편차가 큰 것이 고령자 생산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지표인지 검토해야 함 이 지표는 욕구보다 일자리 환경, 노동수요에 해당하는 지표임 고령자 고용의 경우, 우선고용직종, 적합직종(산업 포함) 등이 존재하는 만큼 고용이 어려운 산업/직종도 있음. 산업별 고용 편차가 크거나 작다고 현황이 나쁘거나 좋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지표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호함. 산업별 편차는 큰 의미가 없으며, 산업 x 지역 편차를 고려한다면 인구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함(삭제 필요) 이 지표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고령자 고용이 다른 연령과 같은 비율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여겨짐. 그런데 고령자의 취업이 쉬운 직종인지 아닌지에 따라 고령자 고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고령자가 취업하기 쉬운 직종이나 산업 부문에서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고령자 고용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따라서 산업 부문이나 직종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 고용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음(삭제 필요) 지표의 선정 의미를 알기 어렵고 필요성이 떨어짐. 산업별 의무고용이행 여부 또는 초과 이행률로 대체 검토(삭제 필요)
	장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비율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근로는 상용직이나 비임금근로를 하는 고령자들인 경우가 많음. 장시간 근로시간은 연약한 고령자의 신체를 고려할 때 부정적인 결과지표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장시간 근로 고령자의 비율이 큰 의미가 없음. 근로시간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평균 근로시간 개념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삭제 필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전일제 근로가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로 넣는 데 고민이 됨(삭제 필요)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명시, 근로시간 범위 구분(예 40~45시간/ 46~52시간 / 52시간 이상 등) 초단기 근로자 비율을 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돌봄 영역 등 민간 일자리와 재정지원 일자리 등은 초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음. 초단기 근로자는 연차, 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는 등 질적인

[고용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p>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의 불안정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자는 업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보다는 장시간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에 대한 제사가 더 중요할 듯함(삭제 필요) • 고령노동자는 대부분 시간제 노동으로 일을 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장시간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외수당 등의 법정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을 거라 판단됨. 다만, 경비직 등의 업무는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업무라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보다는 고용 환경에 관한 별도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삭제 필요) • 이 지표는 고령자도 다른 연령대와 동일하게 장시간 근로를 하여야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지표임. 고령자의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가 직종과 근로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침(삭제 필요) 	
과정 지표	목구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취업자 대상)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 현재 일자리에 만족해서 계속 일하고자 할 수 있지만, 일할 곳이 거의 없어서, 또는 구하기 어려워서 지속하고자 할 수 있어서 결과 해석의 의미가 다차원임
		취업 의사 (비취업자 대상)	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취업자 중 취업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 비율로 하기보다는 지난 6개월간 구직 활동을 한 경험 여부로 구체화해야 함 • 미취업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음
		희망 퇴직 연령(장래 근로 희망 연령)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고 싶은 최대 나이에 대한 가지는 평균수명 연장, 개인의 물리적 노동 가능 상태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단지 연령으로 환산해 과정지표의 욕구로 지표화하는 것에 의문이 듦 • 퇴직 연령을 몇 세로 해야 이상적인지를 규정할 수 없음. 희망 퇴직 연령이 높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지표에 넣었을 때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삭제 필요) • 퇴직과 은퇴가 혼용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이 지표에서도 일하고 싶은 최대 나이라서 희망 퇴직 연령이 아니라, 희망 은퇴 연령이 적합함
		희망 근로시간 형태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근무시간 형태가 전일제와 시간제 중 어떠한 형태가 더 바람직한지는 평가하기 어려움.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근무형태가 달라지므로 이를 지표에 넣는 것은 지표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짐 (삭제 필요)
		구직자 역량 대비 고령시 일자리 수준 평가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 수준은 정성적 평가지표이므로 객관적인 양적 지표가 바람직함. 전문직 구직자의 취업률(혹은 취업자 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평가지표로 바람직하지만, 조사가 가능할지 우려스러움. 부합하는 일자리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느낌이 있어 객관적으로 조사 가능한 지표로 수정해야 함 • 구직자 역량에 맞는 일자리 수준을 어떻게 매칭하겠다는 건지 현재 알 수 없음. 또 구직자 욕구에 맞는 일자리 공급량을 보기 위해서는 역량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근로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삭제 필요) • ‘역량’이라는 개념과 ‘부합하는 정도’, ‘많은 정도’ 모두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고용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정책			<p>개념으로 보임. 이 지표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구직자가 고양시 일자리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지표가 아니라, 결과지표에 가까워 보임 	
		고용서비스 시설 수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다는 기관 또는 센터(고용복지센터, 취업알선센터/기관)로 기술하고, 고양시 내 혹은 지역 내로 지리적 범위를 정해야 함
		고령 일자리 관련 조례 수	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 개수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됨. 다만 조례 수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경우 삭제 필요 • 단순 선언에 그칠 수 있는 조례보다 실제 고용지원정책이나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삭제 필요) • 조례 수보다는 조례의 내용이 더 중요함 • 조례 수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 듯함 • 시민들은 조례 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삭제 필요)
		취업정보 접근도	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한 정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응답할지에 대한 보완 설명 필요 • '취업'과 '채용'이라는 단어 사용을 고민해보아야 함. 취업은 주체인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일 자리를 얻기 위해 활동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채용의 주체는 고령자를 뽑으려는 업체, 기관들의 행위로 볼 수 있음. 고령자들이 본인들을 뽑고자 하는 업체, 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채용정보사이트' 등의 단어를 고려한다면 수정해야 함(ex: 채용정보 접근도)) • 접근도보다는 접근 용이성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함 • 고용서비스 기관(센터) 수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항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공공일자리 수	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대비 공공일자리 수의 증감 여부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비임금 근로자가 제외됨
		민간일자리 수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종사자 중 고령자 수 또는 비중이 더 적절하다 생각됨 • 민간일자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정책의 과정지표가 맞는지 검토해야 함. 정책 중 노동수요 측면은 별도로 구분해 구성해야 함 • 민간일자리 중 고령자 채용 가능 혹은 채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활용을 검토함 • 민간일자리 수를 사업체 종사자 수로 측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고, 사업체 종사자 수로 측정한다면 과정지표가 아니라 결과지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함 • 고령자 대상의 지표이므로 '사업체 종사자 수'보다는 사업체에서 구인하는 고령자 일자리 수, 또는 사업체 고령 종사자 수로 수정해야 함
	계속고용제 시행 기업 수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정의 수정 필요. 예 정년을 6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체 수 • 정식 명칭으로 수정해야 함(ex: 계속고용제도 시행 기업 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시행 기업 수) • 계속고용제도나 임금피크제도는 60세 이전에 특히 중요한 지표임. 한국의 법정 정년 연령이 60세이며, 계속고용제를 지표로 적용하기에 65세 이상자 대상의 지표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음.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례들도 퇴직 후 2년 정도가 대부분임. 현실적으로 65세 이상자들을 고려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고용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사회문화특성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	3.40	는 어려움(삭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숫자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삭제 필요) 임금피크제는 60세 이상 정년임무화 과정에서 도입된 과도기적 임금체계이며, 지금은 임금피크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삭제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령자의 생산활동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아직 말하기 어려움. 같은 이유로 60세부터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함. 특히 임금피크제는 주로 적용되는 기업들의 이수도 60세까지 정년연장으로 55~60세에 특히 중요함. 임금피크제도나 계속고용제도 보다는 65세 이상자에 대한 고령자고용 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사업장, 유연근무제 도입사업장 등으로 대체하는 편을 제안함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에 실시하는데 법정 정년은 60세라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음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일지리의 영역에 따라 고령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연령차별이 없었지만, 고령자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시해야 함 연령차별이 있는지 묻기보다는, 현재 직장에서 연령차별의 체감 상태를 묻는 것이 적절함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과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삭제 필요)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차별이 있는지 묻기보다는, 현재 직장에서 연령차별의 체감 상태를 묻는 것이 적절함 현재 취업자 대상으로 국한해서 측정해야 함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설계 여부	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로, 또한 응답자에 따라 광범위 주관적인 내용이고 산인법이나 중재법의 준수 여부를 알아야 응답 가능한 항목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삭제 필요) 고령친화환경이라는 단어에 물리적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임. '물리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정의함에 따라 지표명을 수정해야 함 지표명은 설계 여부인데, 항목 정의는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비율로 차이가 있음

□ 고용 영역 중 추가 필요 지표 및 이유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초안에 추가할 지표와 그 이유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7] 고용 - 추가 필요 지표 및 이유

추가할 지표명	설명 및 이유
종사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근로형태를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추가될 필요에 따라 결과지표로서 종사상지위 추가 필요 결과지표로 보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 긍정적인 성과로 정의함

추가할 지표명	설명 및 이유
	고 있지만 이런 경우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근로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님.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하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정년퇴직 후 6개월 내 재고용 및 재취업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기간의 정년퇴직자 규모를 확인하고, 그중에서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된 비중, 다른 사업장에 빠르게 재취업한 비중을 확인하는 작업은 해당 지역의 고령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서 고령자 취업 시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므로, 안전과 관련된 지표관리가 필요함 고양시 고령자의 산재 비율을 활용하여 질병이나 산재로 인한 일 손상을 지표로 가져갈 수 있다면, 더욱 객관적인 평가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근로여건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하는 일,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고령자 창업 사업장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노동자 외 창업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지표임
일하기를 원할 때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기를 원할 때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퇴직 후 전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생산지표이므로 임금근로자 외 자영업으로 전직 가능성과 역량도 고려할 수 있음
평균 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평균 임금액
고령일자리 관련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일자리 관련 조례 수도 중요하지만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관련 조례의 수도 중요함. 조례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차원에서 공공일자리의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총량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초단시간근로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질적 측면의 평가자료로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질문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서비스기관 이용 관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기관 이용 관련된 지표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용 횟수 또는 고령 인구 대비 이용률 등의 지표 등에 대한 고민 필요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고령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 수도 의미가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한 고령자 규모가 더 중요한 지표일 것임
고령친화기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고령친화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수가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고용지원 기관 종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 시설 수와 유사 중복되는 지표일 수 있겠으나, 전달체계 관점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고령구직자(서비스를 받는 고령자) 수가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고용지원 기관의 취업알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지원기관 관련 지표에는 취업알선율, 직업 1인당 지원 대상자 수 등을 많이 사용/전달체계나 지원방안 등에 참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이용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피크제, 계속고용제와 마찬가지로 주요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인 만큼 포함 필요
직무 관련 지식·기술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임
고용서비스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 시설 개수뿐만 아니라 전담 전문인력의 규모도 고령자 고용 및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장시간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에 대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에 대해 제시해 줌으로써 피고용자가 고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줌

추가할 지표명	설명 및 이유
기업 인센티브 정책	• 고령자 채용 민간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관련 정책 여부
퇴직 후 전직 비율	• 퇴직 후 재취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주된 일자리로 재진입에 해당하는 비율과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지표로 파악된다면 이에 대한 일자리 개발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후 근로의 주된 이유	•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뷰 등으로 확인하여 다른 지표의 해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 노인일자리	•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연근무제 도입사업장 수	• 고령친화환경과 관련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사업장 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노인생산물 판매액	• 시니어클럽 등에서 생산한 노인생산물의 판매액

□ 역량과 교육 영역의 1차 조사 결과

- 역량과 교육의 지표 중 신체건강과 직업 및 재취업 교육 희망 의사가 4.50점으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음. 이어 직업교육훈련 접근도 4.25점, 정신건강 4.2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가 3.40점으로 중요도가 영역 중 가장 낮았고,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 수 3.45점, 자격증 보유 개수 3.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 역량과 교육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량과 교육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결과지표	학력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분해서 측정해야 함(예: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 시대 변화에 따라 이 지표의 기준은 고등학교가 될 수도 대학교가 될 수도 있음. 지표 조사 시 학력 수준을 중졸/고졸/대졸 등으로 세분화해서 조사하고 향후 지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고령자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음 • 고령자들에게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음. 고령자가 되면 학력을 넘어 보편일률적으로 됨(삭제 필요) • 65세 이상은 공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학력만으로 하기보다는 인적자본(학력, 기술 등)으로 하는 것이 적합함 • 학력 지표는 결과지표보다 과정지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적합함
	월 소득수준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과 관련된 결과지표라면 가구의 월 소득수준보다는 고령 노동자의 월 임금 수준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인의 역량, 교육과 상관관계 낮음. 이 지표를 사용하려면 가구 규모, 가구

[역량과 교육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취업자 수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함(삭제 필요) 고용증진을 위한 역량 및 교육 영역의 결과지표로 연관성이 떨어짐. 굳이 포함해야 한다면 고용(취창업)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삭제 필요) 결과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의 월 소득수준과 함께 고령자 개인의 월 소득도 조사하면 좋을 것 같음 월 소득수준에 따라 고용 역량이 높고 낮음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고용 영역에서 취업자의 경우 고용으로 인한 월 소득수준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를 측정한다면 지표로 활용 가능하지만, 역량과 교육의 지표로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짐 이 지표는 개인 단위로 설계하고 모든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신체건강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의 효과적·결과적 측면도 없진 않을 것 같으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결과지표로 적용 가능 주관적인 인식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인 만큼 의사가 진단했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지표로 적합함
	정신건강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스 요인 파악(경제적 이유 등)과 함께 취업 활동 전과 후의 비교가 아닌 이상 큰 의미 없음(삭제 필요) 고령자의 '정신건강' 지표는 의미가 있으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생산지표로서 역량과 연결하기는 어렵고, 우울 여부가 더 관계가 크다고 봄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정신건강의 일부이므로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측정 문항으로 수정해야 함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우울이나 불안으로 수정할 것을 고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크다고 인지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도가 높음 직장 스트레스도 아니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이며,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우울이나 인지장애(간이 치매검사 등)가 좋은 것 같음
	ICT 활용 정도	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고령자에게 해당 기술 수준이 적절한 생산성 지표인지 검토해야 함. 필요하다면 ICT 관련 문항 2개 중 하나만 넣는 게 적절함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판단할 때 '정보접근수준(보유기기)+역량수준(이용능력)+정보활용수준(이용 여부 및 이용다양성)'을 고려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 필요. 현 지표명도 아래 있는 지표명과 정의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ICT 활용 역량 수준' 또는 'ICT 활용 역량'으로 수정 필요. 이에 따라 'ICT 직무 역량' 또는 'ICT 직무 역량 수준'으로 수정 IT 활용 정도와 역량 수준은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함
	ICT 직무 역량 수준	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직무 역량 수준은 엑셀 워드 등 ICT 관련 자격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자격증 보유 개수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삭제 필요) ICT 활용 정도와 다소 중복된다고 여겨지며, 이 지표는 사무직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커서 다른 여러 직종의 직무역량을 포괄하지 못함. 따라서 취업 희망직종과 관련한 직무 역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격증 보유 개수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지가 더

[역량과 교육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p>중요할 듯 여겨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보유 개수는 별 의미 없음(삭제 필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고령자가 자신 포함 동년배의 노동생산성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측정하는데, 이러한 측정방식은 기업의 생산성 관점에서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임금 대비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보완해야 함 • 주관적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고 판단됨(삭제 필요) • 어떤 지표인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음. 지표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함 •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는 고령자들에게 적절치 않음 •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노동생산성'의 지표 정의와 이 지표에서 논의하는 개념이 동일할지 의문임. 항목 정의를 보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측정 및 계산을 어떠한 개념으로 할지 의문임 • 고령자 집단의 생산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역량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임(삭제 필요) • 이 지표는 고령자의 생산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됨. 그렇다면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고령자의 역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인관계 능력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능력은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인 중 하나임. 다만, 대인관계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야 함.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려해야 함 • '능력'이라는 단어는 지표명으로 부적절해 보임. '대인관계 역량'으로 수정 필요. 대인관계 항목 정의도 포함하는 내용이 모호함. 정확한 측정 요인을 구성하여 재정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ex. 노인일자리 활동평가 영역 육체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 현재 결과지표 명칭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해당 역량을 대영역으로 하여 중영역이 분류될 수 있을 것임. 각 중영역을 균형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면 내용 추가 필요) 	
과정 지표	육구	직업 및 재취업 교육 희망 의사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정책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	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표(직업훈련 전반)에서 고령자를 특정해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임. 직업교육훈련 기관 중 고령자에 특화된 기관, 즉 실제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음 • 단순히 기관 수나 프로그램 수 등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함(삭제 필요) •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면이 있음 • 개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과 연계하는 기관이 필요함 • 65세 이상 가운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분은 극히 드물 •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취업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지만, 이 센터를 생산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나이가 이 센터를 확대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고령시 생산지표로는 적합하지 않음(삭제 필요)

[역량과 교육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직업교육훈련 접근도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를 명시해주면 좋겠음(소양교육도 포함하는지 등)
	직업교육훈련 참여 재직근로자 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수보다는 재직근로자 대비 비중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최근 3년 등 기간을 명시해야 함. 현재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보다 최근에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봄 이 지표의 평가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재직자 가운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노인 수는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오히려 취업 전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취업교육을 받는 비중은 많을 수 있으므로, 취업교육으로 범위를 넓혀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삭제 필요)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고령 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를 파악하는 것을 제한함 항목의 정의를 보면 고령자 재직, 고령자 참여, 고령자 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하나 지표명에는 나타나지 않아 일반 연령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임. 수정 필요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수보다는 고령인구 대비 비중이 더 적절하다 판단됨 최근 3년 등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보다 최근에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봄 항목의 정의를 보면 고령자 재직, 고령자 참여, 고령자 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하나 지표명에는 나타나지 않아 일반 연령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임. 수정 필요 직업훈련 참여경험률이 더 적절함 직업교육훈련 참여 재직근로자 수 지표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삭제 필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수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관련 지표가 더 적절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판단됨(삭제 필요) 공공기관, 혹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만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민간 프로그램도 해당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설명 필요(지자체 건강검진 사업 수는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업 수라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수보다는 질과 내용이 더 중요함(삭제 필요) 항목의 정의를 보면 고령자 재직, 고령자 참여, 고령자 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하나 지표명에는 나타나지 않아 일반 연령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임(수정 필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보다 참여자 수가 중요하며, 이 지표가 있으므로 단순 프로그램 수는 삭제 필요해도 무방(삭제 필요)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 수	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건강증진을 점검할 이유는 없음(삭제 필요) 생산적 참여를 위하여 결과지표의 건강 측면 지표와 연결하여 포함된 지표로 보이나 맥락상 부적절해 보임. 대부분 지표가 고용과 관련한 역량, 교육 등을 담고 있기에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지표를 통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함(삭제 필요) 건강증진 사업도 고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직장 내 사업이나, 지자체 내 사업이나로 나누어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사업 수는 그 밖에 다른 고령자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건강, 돌봄, 요양 관련 등) 고용 지표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함

[역량과 교육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관련 의견
사회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은 역량과 교육 영역에 맞지 않음(삭제 필요) 고용증진을 위한 역량 및 교육 영역의 결과지표가 적합함 인식 추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함. 고령 당사자들의 인식인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인지 명확히 밝혀야 함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은 고용 지표 중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과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 지표와 중복됨(삭제 필요)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대중교통 및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수정해야 함.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가 의미를 가질 것임 이미 또 다른 과정지표인 직업교육훈련 접근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삭제 필요)

□ 역량과 교육 영역 중 추가 필요 지표 및 이유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초안에 추가할 지표와 그 이유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9] 역량과 교육 - 추가 필요 지표 및 이유

추가할 지표명	설명 및 이유
고령자의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주거환경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동 참여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음(노동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생산성 유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연령대 또는 50대 대비 생산성 유지 수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
생애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생산성, 역량과 관련해 근속기간은 중요한 정보임 고속연자 규모 확인 필요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도 고용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함께 고려 필요
취업 조언 도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은 특히 주변인과의 네트워크,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령자의 생활특성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한 지표일 수 있음
구인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영역의 결과지표가 될 수 있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능력 유무/ 직업의 정보 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지표들은 고령자 대상 직업훈련 및 교육 정책의 결과(효과성)로써 나타나는 지표들로 결과지표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역량과 교육의 결과지표가 앞서 조사하는 '고용'의 과정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취업을 위한 서류 작성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정보 예시: 필요한 능력, 근무조건 등 취업을 위한 서류 예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특정 업무에 적합한 학력 소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업무에 적합한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여겨짐
인지능력을 포함한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능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의 파악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임
연계 직업 활동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하기 전에 숙련된 분야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
신체건강 양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 지표가 있지만 주관적 지표이므로, 아래 참고 지표 중 객관적 양적 지표들(병력,

추가할 지표명	설명 및 이유
	만성질환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음
취업을 위한 준비 역량	•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지표에 대한 결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와 관련하여 취업 관련 정보 취득, 취업을 위한 서류 작성 가능, 면접 대처 능력 등을 포괄하는 지표가 필요함
재취업 교육훈련 성과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서 재취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성과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교육 후 취업연계, 교육 만족도 등과 같은 지표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재취업 교육훈련 만족도	• 재취업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취업성공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노인직업훈련 지원 기관 수	• 노인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기관 수
특정 업무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의 유무	• 단순히 직업교육훈련의 숫자나 유무보다는 그 훈련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평생교육 참여율	• 평생교육 참여율, 고령자의 1년간 학습활동 참여율 등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 • 과정지표 중 정책 부분에 포함할 수 있음 •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직업훈련기관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상당히 적어서 평생교육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평생교육 만족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질 등을 평가하기에 적절할 것
고령인구 대비 어르신 평생교육기관 조성 현황	• 과정지표 중 정책 부분에 포함할 수 있음
자원봉사 참여자 규모	• 노인일자리 사업 등 경미일zur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고령자 규모 확인
부양의무	• 생산활동 결정요인으로 부양부담이나 부양의무(병간호 등으로 부양할 사람이 있거나 부양의 무가 있는 경우)이 있을 수 있음.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부양부담으로 경제활동,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력, 수입상태와 함께 부양의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필요
교통, 이동 편리성 (객관적 지표)	• 고령인구 대비 도보 이동시간 진단(=고령자의 일상용품 구매장소와의 도보 이동시간), 고령 인구 대비 버스정류장 조성 진단(=버스정류장 개수/(고령자수/1000)) 등 노인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 외에 객관적 지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
고령자의 이동성 관련 참고 지표들	• 고령자일수록 거주지 주변에서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비중 등 고령자에 국한하지 않는 대중교통 접근 가능성 관련 양적 지표가 있으면 좋겠음

3) 2차 델파이 조사

□ 조사 개요

- 1차 조사에 참여했던 사회복지, 고령자 고용, 경제, 노동 등의 전문가 20명이 2차 델파이 조사 대상임
- 1차와 동일하게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되었고 참여 전문가 20명이 모두 기한 내에 회신함

- 1차 델파이 결과로 정리된 중요도 점수, 지표 관련 의견, 추가 지표로 제한된 지표와 그 이유 등을 영역별로 정리해 제시한 다음, 기존의 지표와 추가할 지표의 중요도 점수를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중요함) 사이로 평가하고, 각 지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삭제, 중요, 변경 등으로 기술하게 함

□ 고용 영역의 2차 조사 결과

- 고용률 4.70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아 그대로 유지하고, 취업 의사는 4.60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지표를 유지하되 정의를 보완하기로 함
-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의 각 중요도는 4.15점, 4.30점으로 높은 편이고 각각 세부지표의 추가를 검토하기로 함
- 일자리 지속 의사, 희망 퇴직 연령, 희망 근로시간 형태, 고령자 고용서비스 시설 수, 취업정보 접근도, 공공일자리 수, 민간일자리 수,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 물리적 고령친화 환경 설계 여부 등은 중요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지표를 유지하되 지표명이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함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 2.40점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외에 산업 부문별 고령자 고용 비율 편차(2.65점), 고령일자리 관련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2.75점), 장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비율(2.80점), 고령 일자리 관련 조례 수(2.85점), 계속고용제 시행 기업 수(2.95점) 등이 3점 미만의 중요도를 보여 삭제됨
- 다만 3점 이상이어도 삭제 의견이 다수인 경우 삭제됨(정년퇴직 후 6개월 내 재고용 및 재취업자 규모,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건수, 고령자 창업 사업장 수, 일하기를 원할 때 일을 할 기회 유무, 퇴직 후 전직 비율, 초단시간근로자 비율, 고령친화기업 수, 고용지원 기관 종사자 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이용 인원, 직무 관련 지식·기술 보유 여부)

- 근로여건 만족도(4.45점), 월평균 임금액(3.60점),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3.65점), 공공서비스 이용 비율(3.90점),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향률(3.95점),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만족도(3.85점), 희망 대비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이, 구직활동 경험률 등의 지표는 추가를 검토하기로 함

[표 4-10] 고용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고용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지표 관련 의견	결과 종합
결과지표	고용률	4.50	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가 생산활동에 참여 가능한 환경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연령대 상세 구분 필요 실업률을 추가하여 해석에 보조지표로 활용 주목 	유지
	근로안정성 (정규직 비율)	3.50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안정성은 중요한 지표이나, 고령자 일자리 특성상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고 정규직 비중으로 근로안정성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은퇴 이후의 고령자들에게 정규직이라는 용어표현은 모호함 정년퇴직 후에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하기를 원할 때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근로안정성은 중요도가 떨어짐 시간제/전일제 비율 지표로 변경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 지표로 변경 	삭제 또는 대체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미달 비율)	4.00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을 평가, 진단하는 결과지표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중요한 지표임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곧 이직률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 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에 따른 저임금 근로인지, 비자발적인 저임금 근로인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지표가 더 적절함 월평균 임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됨 저임금/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구분 필요, 저임금근로자는 IL0기준과 같이 중위임금 2/3 미만을 받는 근로자임 저임금의 기준과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할 것 최저임금 미만 비율 외 상대적 저임금 미만 비율 추가 측정 기준을 시간당 임금인지 명시 필요 	유지/ 지표명 변경/ 세부지표 추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4.15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안정성, 근로지속성 차원에서 일자리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유지/ 세부지표 추가

[고용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지표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지표로서 매우 중요함 • 세부 부분별(임금, 근로환경, 근로시간 등) 만족도 세분하는 것이 정책 제언으로 연결하는데 용이. 본 지표를 추가하려면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역별 만족도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사업 부분별 고령자 고용 비율 편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 • 고령자 근로여건만족도의 하부내용들은 고령근로자가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임으로 중요함 •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직장동료, 상사, 고객과의 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낮다고 판단됨 		
	산업 부분별 고령자 고용 비율 편차	3.20	2.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구분을 세세분류 수준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수치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기존 2차 자료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고령자 고용의 경우, 우선고용직종, 적합 직종(산업 포함) 등이 존재하는 만큼 고용이 어려운 산업/직종이 존재하기 마련임. 산업별 고용 편차가 크거나 작다고 현황이 나쁘거나 좋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본 지표를 통해 고령자 고용의 생산 현황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함 • 시도별 편차가 있어서 고용 시 지표로 적절하지 의문이 있음. 읍면동의 경우 농림어업이 많아서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것이지 고령자 생산성 지표로 보기는 어려움 	삭제	
	장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비율	3.35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자 비율을 생산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고령자에게 부적합 • 대부분의 고령노동자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장시간 근로보다는 단시간 근로를 원함으로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보다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로 변경 • 해당 연령대의 장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 가능한 환경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면 단시간/기간 근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측정할 필요 있음 • 탄력적 근무시간 가능성,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더 적합함 • 장시간 근로자보다 초단시간/단시간/평균/장시간 등으로 구분해 비율 제시 가능 	삭제	
과정 지표	육구	일자리 지속 의사(취업자 대상)	4.30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고령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 취업고령자의 일자리 만족도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가 높은 것이 현재 일자리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일 수 있어서 이를 현재 일자리의 질이 높거나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한계가 있음 	유지/ 지표 정의 변경
		취업 의사 (비취업자 대상)	4.45	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고령층의 생산활동 참여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임 	유지/ 지표 정의 보완

[고용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지표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취업자'라는 용어보다는 미취업자로 수정 필요 • 미취업자의 취업 의사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지표로 주의가 요구됨 		
		희망 퇴직 연령 (장래 근로 희망 연령)	4.10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지역 내 고령층의 장래 생산활동 참여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임 • 퇴직 연령보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나이 등으로 순화 필요 • 과정지표로 희망 퇴직 연령은 중요함 • 퇴직 연령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여 이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유지/ 지표명 변경
		희망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시간제) 비율	4.15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지역 내 고령층의 장래 생산활동 참여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임 • 고령자들은 일과 건강을 생각해서 짧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으로 평가지표로 중요 • '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유지/ 지표명 보완
		구직자 역량 대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4.25	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이라는 개념과 '부합하는 정도', '많은 정도' 모두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개념으로 보임. 이 지표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구직자가 고양시 일자리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 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측정이 어렵고 정책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측정 가능한 일자리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 수준은 정성적 평가지표이므로 객관화된 양적 지표가 바람직함. 교사, 강사, 컴퓨터 전문 문가, 의료, 법조계, 금융 등(고양시에서 정할 수 있음) 전문 직 구직자의 취업률(혹은 취업자 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객관적 지표라기보다 주관적 지표에 가까우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 구직자 역량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엇으로 평가할지에 따라 지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 	유지 또는 대체
정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시설 수	4.25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의 인프라,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 • 시설이라는 단어 구체화 필요 • 시설보다는 기관 또는 센터로(고용복지센터, 취업알선센터/기관) 고양시 내 혹은 지역 내로 지리적 범위를 기술해 줄 필요 있음 	유지/ 지표명 변경
		고령 일자리 관련 조례 수	3.65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 법적 근거는 고령자의 일자리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함. 다만 조례 수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경우 삭제 필요 • 고령 일자리 관련 조례 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삭제 필요 	삭제

[고용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지표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 삭제 의견 다수 		
		취업정보 접근도	4.55	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지표지만, 측정가능한 지표로 수정 필요 • 취업정보 접근 용이성으로 변경 필요 • 지표 정의에서 '편한 정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응답할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유지/ 지표명 변경
		공공일자리 수 (노인일자리 수)	4.45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일자리 수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본다고 한다면 과정지표보다는 결과지표로 넣는 것이 적절함 • 작년 대비 공공일자리 수 증감으로 수정 	유지/ 지표 정의 변경
		민간일자리 수	4.20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종사자 수로 본다면 결과지표에 가까울 수 있음 • 고령자 대상의 지표이므로 '사업체 종사자 수'보다는 사업체에서 구인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수, 또는 사업체 고령 종사자 수로 수정되어야 함 • 작년 대비 민간사업체에서의 고령 근로자 수 증감으로 수정 	유지/ 지표 정의 변경
		계속고용제 시행 기업 수	3.80	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계속고용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음 •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수	3.40	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피크제만으로 고령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였다고 평가하기 힘들 •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사 회 문 화 특 성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4.10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인식인지, 현재 일자리에서 인식인지 명시할 필요 • 대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의 범주를 지표에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음(예 : 낮은 임금수준 차별, 근무시간 차별, 성차별 등) •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과 한 문항으로 통합 필요 	유지/ 지표 정의 변경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	3.80	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따라 연령차별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의 범주를 지표에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음(예 : 업무분류, 휴가, 임금차별, 인사이별 등) • 직장 내 연령차별은 현재 취업자 국한하여 측정 • 연령차별 인식의 주체 명확히 기재 필요(본인 인식인지 vs 타인 인식 vs 사회 인식) • 연령차별 인식의 시점(과거, 현재 인지도) 표시 •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보다 경험으로 측정 	유지/ 지표 정의 변경
		물리적 고령친화 환경 설계 여부	4.35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여부보다는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항으로 구체화 필요 •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여건을 고려한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설계 여부는 근로의 지속성과 연계됨으로 중요 • '설계 여부'라는 표현은 제외하여야 지표가 더 명확해짐 • 고령친화 환경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야 함 • '물리적'의 기준, '고령친화'의 기준, '환경'의 기준이 응답자마다 제각각이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 설계 여부를 시민들이 응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유지/ 지표명 및 정의 변경

[고용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지표 관련 의견	
추가 제안 지표	정년퇴직 후 6개월 내 재고용 및 재취업자 규모	-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이라는 기간이 가지는 의미가 다소 모호함 65세 이상 조사이므로 실효성 낮을 것으로 보임 정년퇴직 후 6개월 내 재고용과 재취업자의 규모를 통해 은퇴자의 전체 고용률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중요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건수	-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이며, 타지역과의 비교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임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건수는 근무 업종과 신체적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 필요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근로여건 만족도	-	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근로자의 만족도는 일자리 질적 제고,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 중 하나임 하는 일,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등 영역별로 조사 필요 고령자 근로여건만족도의 하부내용들은 고령근로자가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임으로 중요 	추가 검토
	고령자 창업 사업장 수	-	3.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창업 사업장 수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다소 모호함 고령자 창업 사업장 수보다는 세대 통합이나 상생 관점에서 의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나음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일하기를 원할 때 일을 할 기회 유무	-	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의 관점에서 측정할지 모호 삭제 의견 다수 	삭제
	퇴직 후 전직 비율	-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전직 비율은 중요성 떨어짐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월평균 임금액	-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 근로자 많으므로 근로시간을 함께 조사하여 시간당 임금액으로 나타낼 필요 고령근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에 따라 노동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때문에 고령근로자의 유사 근로 직군별 평균 임금액으로 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추가 검토
	고령일자리 관련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	-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 일자리 관련 조례 수 지표와 중복됨. 조례 내용의 필요성보다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여 차별화를 시도할 것을 고려해 볼 것 추가한다면 어떻게 지표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생산활동 촉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 생산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업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생산설비지원 등은 이미 정책으로 있으므로 필요 없음 	삭제

[고용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지표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의견 다수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	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충족률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 지표임 노인일자리 사업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음 고양시 차원에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창출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임 공공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희망과 실제 참여 의사와 일치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음 	추가 검토
	초단시간근로자 비중	-	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단시간 근로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초단시간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초단시간 일자리는 안 좋은 일자리이지만, 모든 노인에게 안 좋은 일자리는 아님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	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서 고용서비스 시설 수와 함께 서비스 이용률은 해당 지역의 인프라,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과정지표에 취업 정보 접근도와 함께 사용 검토 단, 고용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추가 검토
	고령친화기업 수	-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근로자 근무 만족을 높이는 고령친화기업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근무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 특정 프로그램(사업)을 의미하는지 고령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을 설명하는 것인지 불명확함 고령친화기업,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친화 환경을 갖춘 기업 등으로 해석상 혼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 이 지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표가 되기 쉬움, 고령친화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성도 낮은데 이를 고양시의 지표로 넣을 필요 없음 고령친화기업은 2022년 현재 41개로 매우 제한적이라 지표로 활용하기에 어려움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고용지원 기관 종사자 수	-	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님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이용 인원	-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이용 인원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중요함 기업이 조건을 충족하여 받는 장려금 성격이므로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음 고령자 고용 촉진뿐 아니라 고용유지도 중요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은 많지 않아서 지표로 큰 의미가 없음 	삭제

[고용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지표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의견 다수 	
	직무 관련 지식·기술 보유 여부	-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지표와 중복 객관적 측정이 가능할지 우려됨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자격증 보유 개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추가한다면 조정 필요 	삭제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향률	-	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수요 측면에서 중요 고령근로자 고용에 대한 민간기업의 노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서 중요 조사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면, 별도 조사가 필요하므로 용이하지 않은 지표일 수 있음 ⇒ 추가 검토(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설문 필요) 	추가 검토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만족도	-	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로 지속적인 평가, 관리가 필요한 지표임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원하는지에 대한 문항도 함께 물어 보면 정책적 함의를 얻기 용이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중요 모름이 압도적으로 많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삭제 의견도 있음 	추가 검토
	희망 대비 실제 근무시간과의 차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 대비 실제 근로시간과의 괴리 등의 지표 필요 	추가 검토
	구직활동 경험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의사를 소극적, 적극적으로 구분해야 함. 소극적 취업 의사를 측정하면 확대 편향될 수 있음. 실제 구직 노력 여부를 측정하여 적극적 취업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추가 검토

□ 역량과 교육 영역의 2차 조사 결과

- 신체건강이 4.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 4.40점, 직업 및 재취업 교육 희망 의사 4.35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표는 1차 점수도 각각 4.50점, 4.20점, 4.50점으로 모두 높았음. 이에 세 지표를 유지하되, 신체건강의 경우 세부지표 추가를, 정신건강의 경우 지표 정의의 변경을 검토하기로 함

- 추가 제안된 지표 중 우울 정도, 인지능력, 신체적 건강 양적 지표, 재취업 교육훈련 성과(결과), 재취업 교육훈련 만족도, 고용주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의 지표는 추가를 검토하기로 함
- 초안 중 월 소득수준, 자격증 보유 개수,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 직업교육훈련 참여 재직근로자 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 수는 삭제하기로 결정함. 특히 직업교육훈련 참여 재직근로자 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는 1차에 비해 2차의 중요도 점수가 0.65점(3.75점→ 3.10점)하락해 그 폭이 가장 큼
- 학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교육훈련 접근도,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등은 유지하되 지표명이나 정의를 변경하기로 함
- ICT 활용 정도(4.05점), ICT 직무 역량 수준(3.80점)은 중요한 지표이긴 하나 유사성이 있어 두 지표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자원봉사 참여자 규모가 2.7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주거환경이 2.85점으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표 4-11] 역량과 교육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결과지표	학력	3.80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가 갖는 한계가 있으나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임 • 학력은 임금수준, 생산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중 하나임 • 시대변화에 따라 이 지표의 기준은 고등학교가 될 수도 대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 지표 조사 시 학력 수준을 중졸/고졸/대졸 등으로 세분화해서 조사하고 향후 지표의 활용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고령자들에게 학력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음 • 65세 이상은 공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학력만으로 하기보다는 인적자본(학력, 기술 등)으로 하는 것이 적합함 	유지/ 지표 정의 변경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수준이 고령자의 취업에 미치는 선발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이론적 논쟁이 있음) 고령근로자 업무 파악 능력과 관련 있지만 학력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야 자격증 보유 수) 	
	월 소득수준	3.80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교육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지역 내 고령세대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필요 결과지표일 수도 과정지표일 수도 있음. 가구의 월 소득 수준과 개인의 근로소득 수준을 구분해야 함 가구소득과 역량의 연관성이 낮음 소득 파악 문제로 인해 실질적 평가가 어려움 고령자 생산지표로 취업의 결과로 고령자 소득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를 측정한다면 고용 영역의 결과 지표로 포함될 수 있음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검토
	신체건강	4.50	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 정신건강은 노동을 통해 신체, 정신건강 증진의 효과적, 결과적 측면도 없진 않을 것 같으므로 연구 목적에 따라 결과지표로 적용 중요한 지표이나 측정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주관적인 인식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인 만큼 의사가 진단한 또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있)고 있는 만성 질환의 수가 지표로 적합 	유지/ 지표명 변경/ 세부지표 추가
	정신건강	4.20	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한 지표이나 측정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의 '정신건강' 지표는 의미가 있으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생산지표로서 역량과 연결 짓기는 어렵고 참고 지표 중 우울 여부가 더 관계가 클 것으로 판단됨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정신건강의 일부라는 점에서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측정 문항으로 수정 필요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 정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우울이나 불안으로 수정할 것을 고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크다고 인지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이 높음 직장 스트레스도 아니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이며,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우울이나 인지장애(간이 치매검사 등)가 더 나음 	유지/ 지표 정의 변경
	ICT 활용 정도	3.85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활용 정도와 ICT 직무 역량 수준은 다소 중복된 내용이므로 지표를 하나로 묶으면 좋을 듯함 	유지/ 지표명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고려할 때 “정보 접근수준(보유기기)+역량수준(이용능력)+정보활용수준(이용여부 및 이용다양성)”을 고려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 필요. 현 지표명도 아래 있는 지표명과 정의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ICT 활용 역량 수준” 또는 “ICT 활용 역량”으로 수정 필요. 이에 따라 “ICT 직무역량” 또는 “ICT 직무역량 수준”으로 수정 IT 활용 정도와 역량 수준은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 아래의 문항과 통합 필요 	변경/ 통합 검토
	ICT 직무 역량 수준	3.85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직무 역량 수준은 엑셀 워드 등 ICT 관련 자격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자격증 보유개수에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삭제 필요) ICT 활용정도과 다소 중복된다고 여겨지며, 이 지표는 사무직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커서 다른 여러 직종의 직무역량을 포괄하지 못함. 따라서 취업 희망 직종과 관련한 직무역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지/ 통합 검토
	자격증 보유 개수	3.50	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에 따라 필요한 기술/지식수준이 너무 다르므로 어떤 자격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측정하기 어려움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	3.40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보다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평가하는 지표가 적합 고령자의 생산성 유지 수준 등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로 수정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평가는 주관성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노동생산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중요. 추가 지표로 제시된 취업 정보 인지, 작성 서류 가능 여부, 학력 여부 등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추가 지표를 생성하여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변경 필요 평가 대상이 본인 또는 고령자 전체인지 모호하므로 구체화할 필요 생산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려움 삭제 의견 다수 	삭제
	대인관계 능력	4.00	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보다 역량이라는 단어로 변경 필요 대인관계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모호 능력의 의미가 모호함 사회관계 능력이 더 맞을 것 같음. 그러나 이 역시 누가 평가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대인관계 항목 정의도 포함하는 내용이 모호함. 정확 	유지/ 지표명 변경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결과 종합	
				한 측정 요인을 구성하여 재정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 노인일자리 활동평가 영역: 육체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 현재 결과지표 지표명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해당 역량을 대영역으로 중영역이 분류될 수 있을 것임. 각 중영역을 균형있는 지표를 구성한다면 내용 추가 필요)		
과정 지표	육구	직업 및 재취업 교육 희망 의사	4.50	4.35	• 재취업 의사를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 중 하나임	유지
	정책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	3.95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 고령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함 • 일반대상이 아닌 고령자 대상으로 국한된 직업교육 기관의 수이어야 하나 실제 그 수가 미흡함 •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고령자들의 혜택에 여전히 제한적인 면이 있음 	삭제 검토
		직업교육훈련 접근도	4.25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로 수정 • 직업교육훈련 접근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접근도의 의미가 모호함 	유지/지표명 변경
		직업교육훈련 참여 재직근로자 수	3.75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근로자 수보다는 비중을 지표로 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 • 기간을 제한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위탁 포함)하기 쉽지 않음 •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3.80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참여자 수(프로그램 수)보다는 훈련 이수자 또는 이수 후 재취업자 수(재취업으로 연결된 프로그램 수)로 변경 • 참여자 수보다는 고령인구 대비 비중이 더 적절하다 판단 • 신체적 노화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고령자들은 극히 적으며 단순노동에 참여를 원함 • 기간을 제한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 훈련 참여 재직근로자를 포함한 총 참여자 수로 수정 필요 • 소양교육, 법정 의무교육은 제외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지 / 지표 정의 변경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	3.75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제한 • 프로그램 수 자체보다 참여자 수가 중요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는 그리 중요치 않음 	삭제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직업훈련 접근도에 포함가능함 삭제 의견 다수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 수	3.45	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넓은 의미에서 고령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 고령자의 생산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음 역량과 교육 평가에 필요한 지표 아님 해당 지표는 역량과 교육 영역에 적합하지 않음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사회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4.15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가 평가하는 사회 인식이라면 연령차별 문항과 중복됨 인식의 주체가 모호함 고용상 연령차별과 직장 내 연령차별 의식과 거의 유사함 	유지/ 지표명 변경 검토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3.90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특성상 생산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함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을 때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교통 및 이동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 직업교육훈련 접근도에 포함됨 	유지
추가 제안 지표	생산성 유지 수준	-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지표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지표와 중복되기도 하고, 다차원적이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일 지표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생산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중요한 지표라 판단되나 어떻게 지표를 측정할 것인지 판단 필요 본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라는 점을 구체화시켜서 측정 필요 고용자의 측면에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유지 수준은 중요한 사항임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생애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된 일자리 근속기간을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다소 모호함.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길다고 역량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우울 정도	-	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연결되어 있으며,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침 정신건강 측면에서 중요함. 정신건강(스트레스) 부분과 함께 측정될 필요 있음 	추가 검토	
	인지능력	-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추가 검토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지표와 중복됨 	
	신체적 건강 양적 지표	-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동 지표가 신체건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면 상당히 유용한 지표일 수 있음 연령에 따른 자신의 근로능력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양적인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질병 수 등을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추가 검토
	취업에 대한 조언 도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곧 고용서비스 지원 기관(공공/민간 시설)일 텐데 구체성을 띠는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고용서비스 시설 및 종사자 수, 접근성 등 기존 문항에 이미 포함됨 대인관계 능력 지표로 대체 가능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구인효능감	-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문항이라면 객관적 측정을 위해 고용서비스 참여를 통해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취업정보 접근도, 직업훈련 접근도에서 반영됨 기업은 구인효능감이지만, 고령자 입장에서는 구직 효능감임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정보 인지도(필요한 능력, 근무 조건 등),	-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 접근성 문항에서 측정 가능 인지능력 지표와 중복됨으로 삭제 노동생산성 지표와 고용 영역 연계할 수 있어 개별 측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 취업정보 접근도, 직업훈련 접근도에서 반영됨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취업을 위한 서류 작성 가능 여부	-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활용 정도 지표와 다소 중복됨으로 이 두 지표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음 취업정보 접근도, 직업훈련 접근도, ICT 활용 정도 등에서 반영됨 삭제 의견 다수 	삭제
	특정 업무에 적합한 학력 소유 여부	-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업무에 어떤 학력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 학력과 중복됨으로 삭제 특정 업무를 정의해야 함 업무를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업무에 적합한 학력 또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연계직업활동 유무	-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을 조사하면 그 문항으로 분석 	삭제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함 고용 영역 퇴직 후 전직비율과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와 연계 가능. 본 지표는 고용 영역으로 이동해야 함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 필요 삭제 의견 다수 	
	재취업 교육훈련 성과(결과)	-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서비스 참여를 통해 취업한 사람의 비율 등 객관적 지표는 중요 훈련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모호. 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별로 의미 없음 역량 부분의 결과지표 재취업 교육 후 취업을 등으로 반영 가능 	추가 검토
	재취업 교육훈련 만족도	-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 교육훈련 만족도 측정을 통해 재취업 교육훈련의 질 평가 	추가 검토
	평생교육 참여율	-	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령자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고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라면, 단순히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표가 아닌, 재취업, 창업, 창직과 관련한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고령자 여가와 관련한 평생교육 참여율인지, 직업과 관련한 참여율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 범주에 평생교육은 포함되지 않음 	삭제
	평생교육 만족도	-	3.45		삭제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조성 현황	-	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자원봉사 참여자 규모	-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지표의 생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이 문항은 삭제하는 편이 나음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주거환경	-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역량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앞부분의 지표들과 괴리가 있음 생산지표와 관련성 낮고 너무 포괄적임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지표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삭제 의견 다수 	삭제
	고양시의 세대통합수준 평가	-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역량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앞부분의 지표들과 괴리가 있음 생산지표와 관련성 낮음 응답자의 입장에서 평가 기준 모호함 삭제 의견 다수 	삭제

[역량과 교육 영역]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관련 의견	
	고용주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 수준	-	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과 관련된 지표와 중복 고용주뿐 아니라 직원들의 인식도도 중요함 	추가 검토

4) 3차 델파이 조사

□ 조사 개요

- 이전과 동일하게 사회복지, 고령자 고용, 경제, 노동 등의 전문가 20명이 3차 델파이 조사에도 참여함
- 이메일을 통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수율은 100%였음
- 2차 델파이 결과를 제시하고 지표별로 필요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1·2차 조사를 통해 삭제된 지표를 제외하고 유지 또는 검토가 필요한 지표의 중요도를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중요함) 사이로 평가함
- 최종적으로 삭제를 결정할 때 그 기준 점수 경계에 있는 항목의 경우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함

□ 고용 영역의 3차 조사 결과

- 가장 낮은 중요도 점수가 3.85점(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으로 전체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고용률이 4.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2차 조사 결과와 동일함
- 근로안정성의 경우 2차에 비해 3차의 점수가 0.65점 올라 그 차이가 가장 큼
-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세부지표를 추가하기로 함

- 근로안정성, 희망 퇴직 연령, 공공일자리 수, 민간일자리 수,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 물리적 고령친화 환경 설계 여부 등은 지표를 유지하되 지표명이나 정의를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됨
- 취업 의사, 희망 근로시간 형태 비율, 구직자 역량 대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는 지표를 유지하되 지표명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함
- 추가 제안 지표인 월평균 임금액,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고용서비스 이용률,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향률,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희망 대비 실제 근무시간 차이, 구직활동 경험률 모두 최종 추가하기로 결정됨

[표 4-12] 고용 -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고용 영역]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종합 의견		
결과지표	고용률	4.50	4.70	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만 연령대(예: 65-69/ 70-74/ 75세 이상으로 구분) • ‘실업률’ 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므로 추가하지 않음 	유지	
	근로안정성 (정규직 비율)	3.50	3.35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으로 대체 	유지/ 지표명 및 정의 변경	
	저임금근로자 비율(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율)	4.00	4.15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명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로 변경 • ‘저임금근로자 비율(중위임금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 비율)’ 추가 	유지 / 지표명 변경/ 세부지표 추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4.15	4.30	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별개로 영역별 만족도(임금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 추가 	유지 / 세부지표 추가	
	임금 만족도	-	-	4.15			
	근로시간 만족도	-	-	4.20			
	근로환경 만족도	-	-	4.25			
과정지표	요구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취업자 대상)	4.30	4.30	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정의를 ‘취업자 중 현재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포함하여 계속 일하고 싶은 비율’로 변경 	유지/지표 정의 변경
		취업 의사 (비취업자 대상)	4.45	4.60	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자’로 용어 변경 	유지/ 지표명 보완

		[고용 영역]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종합 의견		
		희망 퇴직 연령 (장래 근로 희망 연령)	4.10	4.30	4.20	• 지표명을 '장래 근로 희망 연령'으로 변경	유지/ 지표명 변경
		희망 근로시간 형태 비율	4.15	4.00	4.10	• 지표명을 '희망 근로시간 형태(전일제, 시간제) 비율' 로 보완	유지/ 지표명 보완
		구직자 역량 대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4.25	3.95	3.95	• 지표명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로 보완	유지/ 지표명 보완
	정책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	4.25	4.05	3.85	• 지표명을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로 보완	유지/ 지표명 보완
		취업정보 접근도	4.55	4.40	4.40	• 지표명을 '취업정보 접근 용이성'으로 변경	유지/ 지표명 변경
		공공일자리 수 (노인일자리 수)	4.45	4.30	4.05	• 지표명을 '공공일자리 비율'로 변경 • 지표 정의를 '고령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로 변 경	유지/ 지표명 및 정의 변경
		민간일자리 수	4.20	4.25	3.95	• 지표명을 '민간일자리 비율'로 변경 • 지표 정의를 '인구 대비 민간일자리 비율'로 변경	유지/ 지표명 및 정의 변경
	사 회 문 화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4.10	4.05	4.40	• 지표 정의를 '고령자 고용에 있어 우리 사회가 연령 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로 변경 • 지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으로 변경	유지/지표명 및 정의 변경
		직장 내 연령차별 인식	3.80	3.90	4.20	• 지표명을 '직장 내 연령 차별 경험'으로 변경	유지/ 지표명 및 정의 변경
	특 성	물리적 고령친화 환경 설계 여부	4.35	4.05	4.30	• 지표명을 '물리적 고령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로 변경 • 지표 정의에 (편리한 화장실, 고령친화성 시청각적 정보 제공, 휴식공간 확보, 작업장의 안정성 등) 등 예시 추가	유지/ 지표명 변경/ 지표 정의 보완
추가 제안 지표	월평균 임금액	-	3.60	4.00	• 최종 추가 결정	추가	
	공공일자리(노인일자 리) 참여 희망률	-	3.65	3.85	• 최종 추가 결정	추가	
	고용서비스 이용률	-	3.90	4.20	• 지표 정의를 '지난 1년간 고용서비스(구직상담, 취업 정보 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진로지도,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직업훈련 등)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 비율'로 변경	추가/ 지표 정의 변경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향률	-	3.95	4.20	• 최종 추가 결정	추가	
	고양시 고령자	-	3.85	4.35	• 최종 추가 결정 • 설문에 지난 한 해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추가	

[고용 영역]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종합 의견	
	고용정책 만족도				안내 추가 예정	
	희망 대비 실제 근무시간 차이	-	-	-	• 최종 추가 결정	추가
	구직활동 경험률	-	-	-	• 최종 추가 결정	추가

□ 역량과 교육의 3차 조사 결과

- 3차 조사 결과, 직업교육 희망률이 4.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차에 비해 1.3점이 상승해 그 폭이 가장 컸음. 반면 월 소득수준은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최종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신체 건강은 4.30점, 객관적 신체 건강상태는 4.20점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건강에 관한 지표를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구분해 후자를 추가하기로 함. 반대로 ICT 활용 정도와 ICT 직무 역량 수준의 지표는 통합하기로 함
- 직업교육 기관 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등은 특별한 수정 없이 유지하기로 함
- 직업교육 접근도, 직업교육 참여자 수는 지표명과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변경해 유지하기로 했으며, 학력은 지표의 정의를 보완하고, 정신건강은 지표의 정의를 변경함
- 1차 조사에서 제안된 지표 중 인지능력, 재취업 교육훈련 성과(결과), 고용주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은 최종 추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재취업 교육훈련 만족도는 추가하되 지표명을 변경하기로 함

[표 4-13] 역량과 교육 -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량과 교육 영역]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결과 종합
구분	지표명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종합 의견		
결과지표	학력	3.80	3.25	3.55	• 지표 정의에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석사, 박사' 기준을 추가하고 등 7점 만점 중 해당 점수로 측정	유지/ 지표 정의 보완	
	월 소득수준	3.80	3.60	3.30	• '월 소득수준' 유지 필요	유지	
	신체 건강	4.50	4.55	4.30	• 지표명을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로 변경	유지/ 지표명 변경/ 세부지표 추가	
	객관적 신체 건강상태(만성질환 수)	-	-	4.20	• '객관적 신체 건강상태(만성질환 수)' 추가		
	정신건강	4.20	4.40	4.00	• 지표 정의를 '정신건강(우울)'로 변경	유지/ 지표 정의 변경	
	ICT 활용 정도	3.85	4.05	3.70	• 지표명을 'ICT 활용 역량'으로 변경	유지/ 지표 통합	
	ICT 직무 역량 수준	3.85	3.80	3.65	• 'ICT 활용 정도', 'ICT 직무 역량 수준'을 하나로 통합		
대인관계 능력	3.50	3.05	3.80	• 지표명을 '사회적 역량'으로 변경	유지/ 지표명 변경		
과정 지표	목구	직업교육 희망률	3.40	3.10	4.40	• 지표 유지	유지
		직업교육 기관 수	4.00	3.65	3.45	• 지표 유지	유지
	정책	직업교육 접근도	4.50	4.35	3.85	• 지표명을 '직업교육 참여 용이성'으로 변경 • 지표 정의를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실제적으로 참여하기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편한 정도'로 보완	유지/ 지표명 변경/ 지표 정의 보완
		직업교육 참여자 수	3.95	3.60	3.50	• 지표명을 '직업교육 참여율'로 변경 • 지표 정의에 취업자, 미취업자 포함 부분 추가 제시	유지/ 지표명 변경/ 지표 정의 보완
	사회 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4.25	4.05	3.80	• 지표명을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으로 유지	유지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3.75	3.10	3.95	-	유지
추가 제안 지표	인지능력	-	4.20	3.80	• 최종 추가 결정	추가	
	재취업 교육훈련 성과(결과)	-	4.25	4.05	• '직업교육 후 취업률'로 지표 추가	추가	
	재취업 교육훈련 만족도	-	4.15	4.05	• 최종 추가 결정 • 지표명을 '직업교육 만족도'로 변경	추가/ 지표명 변경	
	고용주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 수준	-	3.90	4.00	• 최종 추가 결정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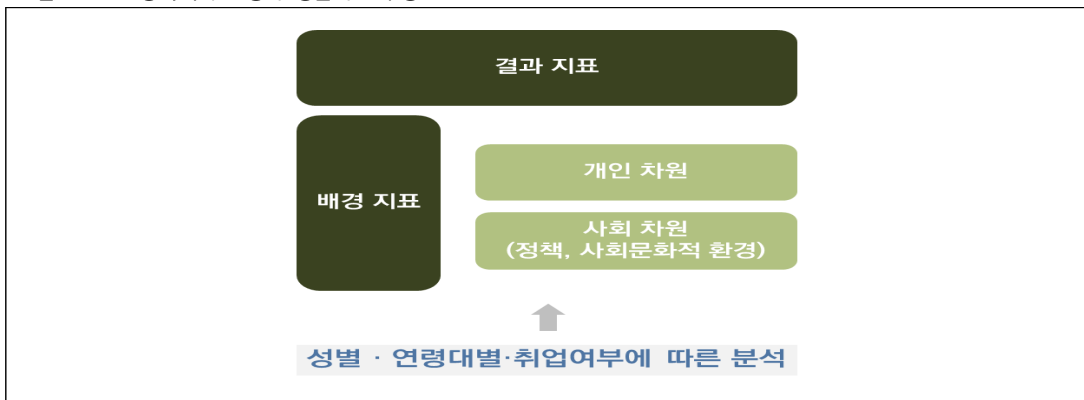
제3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설계

1) 지표 영역과 구성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영역은 고용 영역, 역량과 교육 영역으로 구성됨
 - 이는 본 연구에서 생산활동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개발 활동으로 정의한 결과를 따른 것임
- 각 영역은 결과지표와 배경지표로 구분되며 배경 지표는 다시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나뉨
 - 초안에서는 결과지표와 과정지표(육구, 정책, 사회문화 특성)였으나 델파이 조사 중 배경 지표가 더 적합하고, 개인 또는 사회 차원으로 묶는 것이 더 간결하고 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표의 구성을 수정함
- 세부 지표는 고령자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대별,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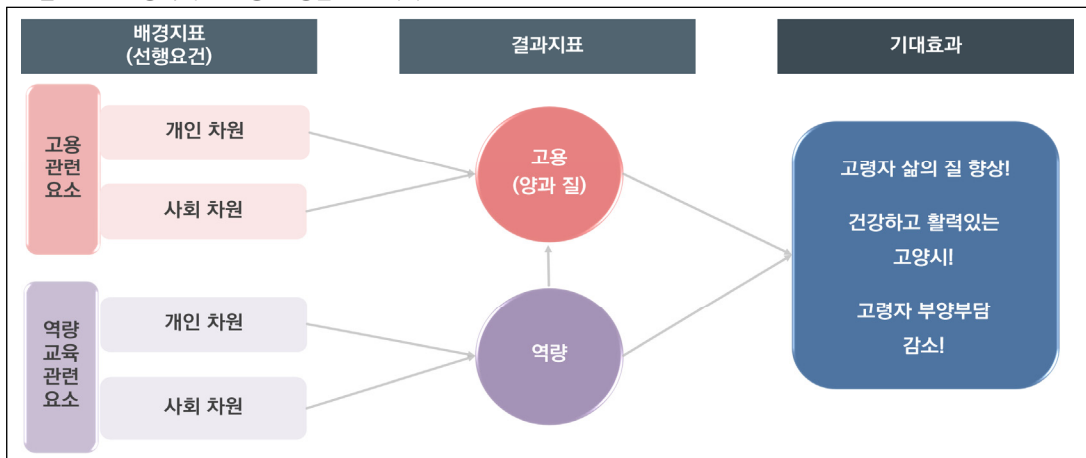
[그림 4-4]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구성



2) 지표 체계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체계는 크게 배경지표(선행요건), 결과지표, 기대효과로 구성됨
- 배경지표는 고용 및 역량과 교육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각각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구분되며, 배경지표의 결과가 고용의 양과 질, 역량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역량의 수준은 또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역량의 향상, 고용의 활성화는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로써 고양시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령자 부양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4-5]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최종(안)

- 문헌연구, 고령 당사자 FGI, 전문가 자문, 델파이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최종 확정된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용 영역 29개, 역량과 교육 영역 17개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14] 고용 영역 최종(안)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배경 지표 (19)	개인 자원 (7)	고용률	65~69세 고용률	65~69세 고령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해당 연령 취업 고령자	
				70~74세 고용률	70~74세 고령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해당 연령 취업 고령자
				75세 이상 고용률	7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해당 연령 취업 고령자
				월평균 임금액	취업한 고령자의 월평균 임금액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취업 고령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고령 임금근로자 중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고령자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고령 임금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비율	고령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고령 임금근로자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임금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임금에 대한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근로시간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근무환경 만족도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고양시 사회조사(매년)	취업 고령자
배경 지표 (19)	개인 자원 (7)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취업자 대상)	취업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의사(미취업자 대상)	미취업 고령자 중 앞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미취업 고령자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참여 희망률	고령자 중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 비율	자체 조사	고령자		
		구직활동 경험률	미취업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실제 구직활동을 한 고령자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미취업 고령자		
배경 지표 (19)	개인 자원 (7)	희망 근로시간 형태(전일제, 시간제) 비율	취업자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전일제, 시간제)의 비율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희망 대비 실제 근무시간 차이	취업 고령자 중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 정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사회 차원 (12)	장래 근로 희망 연령	취업 중이거나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일하고 싶은 최대 연령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 및 시설의 수 (취업알선기관 등)	내부자료	-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중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 비율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진로지도,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직업훈련 등)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취업정보 접근 용이성	취업 중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편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공공일자리 비율	고령인구 대비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의 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타 사업)	내부자료	고령자
	민간일자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민간일자리 수(사업체 종사자 수)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kosis)	전체 인구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의향률	민간기업 중 고령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민간기업 비율	내부조사	민간기업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취업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에서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고령시 일자리 수준 평가	구직자의 역량지식, 기술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고령시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평가 정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고령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고령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 시 지난 한 해 고령시 고령자 고용정책 인내)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고령자 고용에 있어 우리 사회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고령자 고용에 있어 우리 사회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취업 고령자 중 직장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물리적 고령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물리적 고령자가 일터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노동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 (편리한 화장실, 고령친화성 시정각적 정보 제공, 휴식공간 확보, 작업장의 안정성 등)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표 4-15] 역량과 교육 영역 최종(안)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결과 지표 (8)	학력수준	고령자의 학력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석사, 박사)	사회조사	고령자	
	건강	월 소득수준	고령자 가구의 월 소득수준	사회조사	고령자
		주관적 신체 건강수준	고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신체 건강상태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객관적 신체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수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역량	정신건강-우울 정도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우울감 정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정신건강-인지장애 경험률	고령자 중 지난 한 해 인지장애를 경험한 비율	지역사회건강조사	고령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수준	고령자가 일상이나 직무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사회적 관계 역량수준	업무나 단체활동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감정 및 행동 조절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역량 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배경 지표 (9)	개인 차원 (2)	직업교육 희망률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직업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고령자 비율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직업교육 참여율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직업교육에 참여했던 고령자 비율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구분	지표명	항목 정의	데이터	대상
사회 차원 (7)	직업교육 기관 수	고령자에게 직업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	내부자료	-
	직업교육 참여 용이성	직업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하기에 편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자체 조사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직업교육 후 취업률	직업교육을 받은 고령자 대비 취업 고령자 비율	자체 조사	직업교육 참여 고령자
	직업교육 만족도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자체 조사	직업교육 참여 고령자
사회 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정도	고령자가 생각하는 고령자 역량수준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정도	자체 조사	고령자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정도	민간기업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수준에 대한 인식정도	자체 조사	민간기업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정도	고령자의 대중교통 및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정도	사회조사(출수)	고령자

제 5 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제1절 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제2절 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추진 로드맵

제절 지표 관리 및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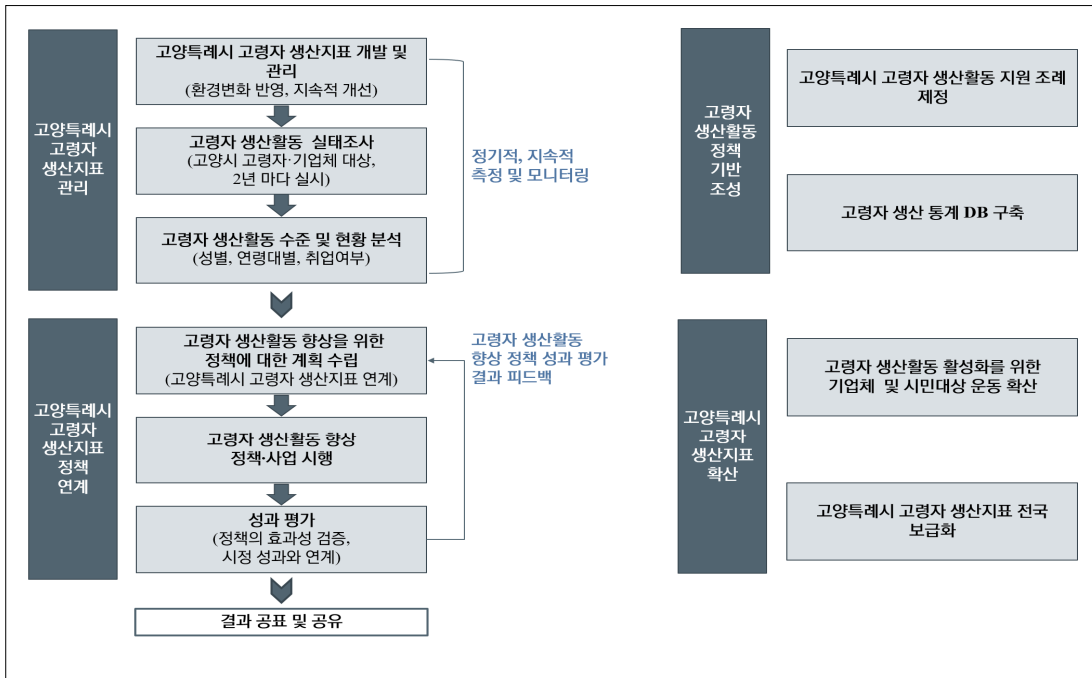
1. 총괄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양시가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로서 이 지표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 관리 방안과 활용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는 지표 관리, 지표 정책 연계, 고령자 생산활동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지표 확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그림 5-1])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가 현 실태를 잘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고령자와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지표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대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지표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고양시 고령자,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생산활동 수준 및 현황을 성별, 연령대별, 취업 여부 등 고령자 집단 내 이질적인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분석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조사의 목적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활동 지원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지표는 정책과 잘 연계되어야 함
 - 지표를 통한 실태가 정책의 계획이나 실행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고령자 생산활동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고양시의

고령자 및 고용 정책을 지표와 연결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계획, 시행해야 함

- 사업 시행 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정 성과와 연계하며 이에 관한 결과를 공표하고 공유해야 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가 잘 관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표 관리 방안을 명시하고 고령자 생산 통계 DB를 구축하는 등 정책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통해 고령자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양시 기업체와 시민이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운동 확산이 필요함
- 고양시에서 적용된 고령자 생산지표가 고양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적용되어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그림 5-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관리 및 활용



2. 세부 내용

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에 있어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행정자료 분석: 통계자료, 고양시 내부 자료 활용
 - 2차 자료 분석: 지역별 고용조사(반기 조사), 사회조사(매년 조사, 문항에 따라 격년 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매년 조사)
 - 설문조사 및 분석: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중 정부 통계와 지역 통계에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보해 설문조사 의존율을 낮추어야 함. 이를 통해 설문 응답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는 정부 통계, 지역 통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차 자료를 활용한다면 타 지역과 비교하여 고양시의 고령자 생산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데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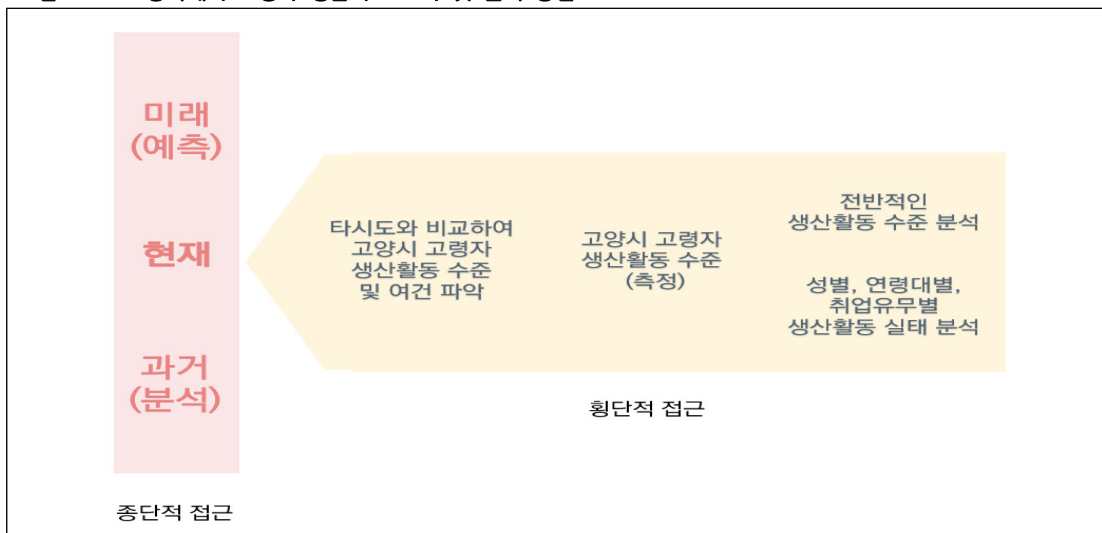
[그림 5-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방법



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조사 및 분석 방법

- 행정자료와 2차 자료 분석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함
- 지표 측정 및 조사는 설문조사에 대한 예산 및 노력 투입과 격년으로 조사되는 문항이 있는 사회조사 데이터 활용을 고려하여 2년 간격으로 실시함
- 설문조사는 고령자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어야 함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측정 결과를 최대화하기(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3\%$) 위하여 표본수를 1,100명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양시 기업체 조사는 고양시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실시함
- 지표 분석은 횡단분석과 종단분석 등 두 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함
 - 횡단분석을 통해 고양시 고령자 전체의 생산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성별, 연령대별, 취업 유무에 따른 집단 구분 등 세부 집단을 비교할 수 있음
 - 종단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측정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

[그림 5-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조사 및 분석 방법



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통계 DB 구축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측정 결과 DB를 구축해 꾸준히 관리하여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수준이 어떠한 추세로 변화하는지, 지표의 변화 추세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시정의 흐름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 다각적으로 평가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책 연관성, 정책 효과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양시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력 있는 고양시를 조성함

4)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 조례 제정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제도로서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에 고양시 고령자의 생산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에는 생산활동을 위한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지표 관리 및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기본 계획 수립을 명시함

5)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적절하게 관리해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내에 고령자 생산활동 전반을 책임질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3개 구청과 주민센터에 담당자를 지정함
- 전담팀은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실태조사,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성과평가, 고령자 생산통계 DB를 구축하고, 관련 타 부서와 상호 연계 조정 등을 총괄함
- 고령자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기업,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산활동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 도모

6)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 및 기업체 대상 인식 확산 운동

- 고양시 고령자가 원하는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증진이 매우 중요함
- 기존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고령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고령자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고령 당사자, 시민, 기업체 참여형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고령자 생산활동 관련 콘퍼런스와 캠페인 등을 실시함

7)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전국 보급화

- 고령자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 고민, 해법을 공유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전국에 보급해 우리나라 전체 고령자의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함
- 고양시에서 개발한 고령자 생산지표에 따른 고양시 고령자의 생산활동 수준, 관련 정책성과 등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함
-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MOU를 체결해 전국 보급화를 추진함

제2절 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추진 로드맵

1. 정책추진 로드맵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 로드맵은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책 연계 및 전국 보급화,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성과 도출 단계로 구성됨

1)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생산적인 고령사회를 구현해 합리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을 위한 고양시, 고양시정연연구원,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 협약 추진(2024년 상반기)
 -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및 분석을 통한 데이터 제공,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조사 및 수준 분석, 고령자 생산활동 지표의 정책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추진, 고령자 생산지표 전국 보급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대한 협약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와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 실시(2024년 상반기)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 전담팀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2024년 상반기)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4년 상반기)

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정책 연계 및 전국 보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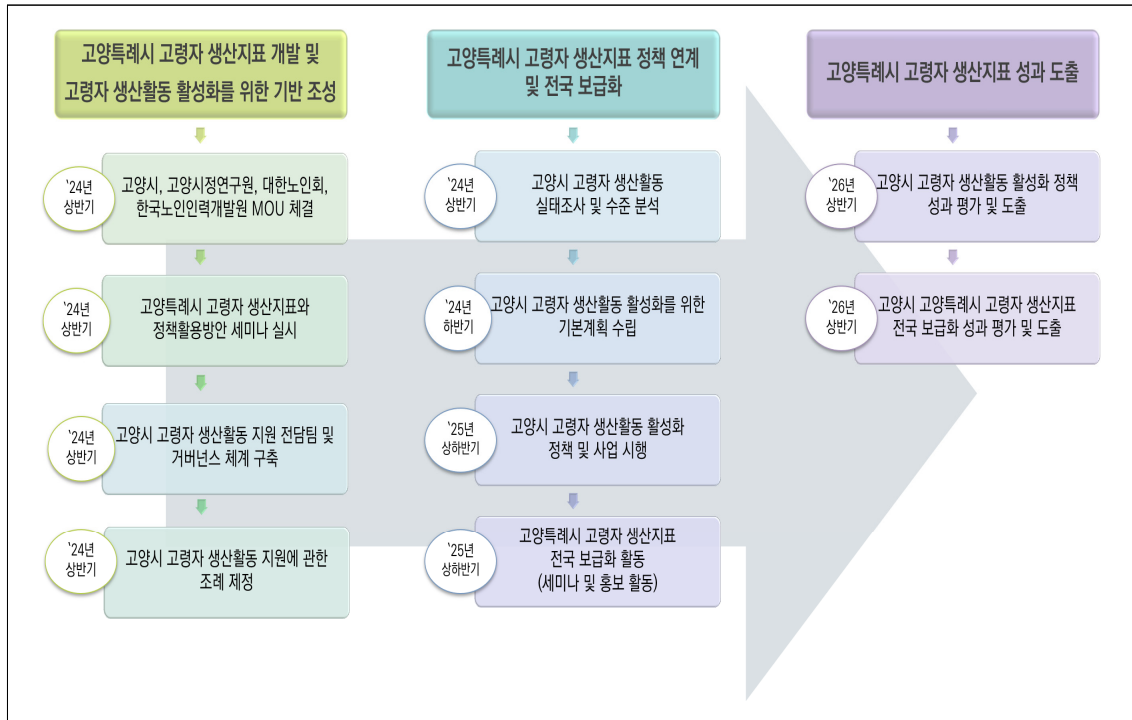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조사 및 수준 분석(2024년 상반기)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024년 하반기)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 정책 및 사업 시행(2025년 상·하반기)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전국 보급화 활동(2025년 상·하반기)

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성과 도출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 정책 성과평가 및 도출(2026년 상반기)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전국 보급화 성과평가 및 도출(2026년 상반기)

[그림 5-4]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활용 계획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은석, 박가열, 정명진, 조아름. (2016). 중장년층 구직자 역량 진단과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김정석, 조현연. (2017). [기획논문] 인구고령화 시대, 생산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4(2), 7-28.
- 김주현, 김지혜. (2012). 법규정상에 나타난 고연령자 명명 (命名) 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년학, 32(4), 1147-1162.
- 김현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 임지영. (2009). 고령은퇴남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53-280.
- 김형수. (2003).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22, 175-192.
- 남기민, 최화강. (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47-371.
- 문정화, 선승아. (2022).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분석. 고양시정연구원
- 박경하, 천재영, 김성용, 손창균, 안승재, 이원진, 임세희, 유선치, 도화정. (2022). 노인일자리 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선권. (2013). '생산적 노화'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172-200.
- 박진희. (2023). 65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고용이슈, 8-27.
- 이소정, 정경희, 박보미, 신지성, 박주언. (2010). 고령사회 정책 필요통계 생산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 유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
- 이호선. (2005), 노인상담, 학지사, 2005, pp.22.
- 정경희, 김미혜, 정순돌, 이윤경.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황남희, 오미애, 이선희, 김정석. (2017).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황남희, 이선희, 김주현, 정순돌. (2015).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통계청. (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2020). 2020년 제8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설문지.

[해외문헌]

- Bass, S. A., and Caro., & Y. Chen.(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 Butler, R. N., & Schechter, M.(1995). Productive ageing. In .I. Maddox(Ed), *The encyclopedia of ageing. A comprehensive resouce in gerontology and geriatrics*. New York: Springer.
- Elizabeth S. Kelchner(1999). Ageism’s Impact and Effect on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2(4), 85-100.
- Fernández-Ballesteros, R., Zamarrón, M. D., Díez-Nicolás, J., López-Bravo, M. D., Molina, M. Á., & Schettini, R. (2011). Productivity in old age. *Research on aging*, 33(2), 205-226.
- Floridi, G., & Lauderdale, B. E. (2022). Pairwise comparisons as a scale development tool for composite measur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85(2).
- Goldman, D. P. et al.. (2018). Measuring the Adaptation of Countries to Societal Ag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Goldman, D. P., Chen, C., Zissimopoulos, J., Rowe, J. W., & Research Network on an Aging Society. (2018). Measuring how countries adapt to societal

- ag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3), 435-437. <https://doi.org/10.1073/pnas.1720899115>
- Herzog, A. R., Kahn, R. L. Morgan, J. N. Jackson., J. S. & Antonucci, T. C.(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4):129-13
- Lasher, K. P., and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37(4): 247-259.
- Morrow-Howell, N., Hinterlong, J., & Sherraden, M. (2001).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rrow-Howell, N., Hinterlong, J., Sherraden, M. & Rozario, P. (2001) *Advancing research on productivity in later life*. In: Morrow-Howell, N., Hinterlong, J. & Sherraden, M. (Eds.)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Neugarten, B. L.,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1): 187-198.
- Schulte, P. A., Grosch, J., Scholl, J. C., & Tamers, S. L. (2018). Framework for considering productive aging and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0(5), 440.
- Simonsick, E. M. (1995). Demography of productive aging. *Promoting successful and productive aging*, 69-90.
- Teerawichitchainan, B., Prachuabmoh, V., & Knodel, J. (2019). Productive aging in developing Southeast Asia: comparative analyses between Myanmar, Vietnam and Thai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229, 161-171.
- Thane, P. & Parkin, T., *The long history of old age*(London: Thames & Hudson),

2005, 안병직 (역), 노년의 역사, 글항아리, 2012, pp.55.

UNECE(2019). 2018 Active Ageing Index Analytical report.

UNECE(2019). 2018 Active Ageing Index Analytical report.

UNECE/European Commission (2018) Active Ageing Index (AAI) in non-EU countries and at subnational level: Guideline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bstract

Development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Junghwa Moon*, Hwang Jin-Soo**, Seunga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that indicate the level and status of production activities of senior citizens and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revitalize production activities in Goyang Special City.

The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aging phenomenon, the concept of the elderly, and the concept of production activities. Second, indicators related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senior citizen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were reviewed. Third, FGI(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the elderly, and the opinions of the parties wer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Fourth, three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20 experts in the field of seniors and employment to derive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in Goyang Special City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consist of ‘employment’ and ‘competency and education’ , and each domain is composed of ‘result indicators’ and ‘background indicators’. In addition, background indicators are composed of ‘individual level’ and ‘social level’ (policy, socio-cultural environment).

*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Korea Senior Citizens Associ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Associate,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There are 46 total indicators, 29 indicators in the employment domain and 17 indicators in the competency and education domain, of which 18 indicators are result indicators and 28 indicators are background indicators.

This study also presented management and utilization measures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